No.436 • 2018. 06. 04 • korea.kr/gonggam

Weekly

공감



2차 남북정상회담, 신뢰외교 길 텄다

[호국보훈의 달] 나라 위한 희생,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

트렌드 | 또 다른 나를 만난다 '다른 곳에 한 달 살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거방송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연락망이 필요해

병원에서 진료카드를 작성하던 중이었다. 담당직원이 물었다.

"비상연락처로, 본인 말고 다른 분 전화번호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대수롭지 않은 주문이었음에도 그 짧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비상연락처라? 뜻밖의 사태에 처했을 때 그 사실을 맨 처음 알릴 만한 누군가가 누구지?

살아오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렸던 적이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그 즉시 누군가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던 기억은 딱히 없다. 상황이 종료됐거나 웬만큼 적응된 다음 하소연 섞인 수다를 떨곤 하는 상대야 더러 있지만.

물론 질문을 받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아들은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제외됐다. 한 집에 살고 있지도 않은 아들이다. 전화도 제꺽제꺽 받지 않는 무뚝뚝한 아들에게 연락이 간들 곧바로 접속이 되리란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제 살기도 힘겨운 청춘이 해준 것 없어 늘 미안하기만 한 엄마의 일로 신경 쓰는 게 싫었다. 그것이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동서남북 제 갈 길로 흩어져 고군분투하는 동기간의 이름들 중 하나를 들먹이기는 더더욱 내키지 않았다. 혈연이 강요하는 끈끈한 연대의식이란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강박관념일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처를 최소화할 적정 거리가 필요하다. 비록 한 부모 밑에서 올망졸망 커온 동기간일지라도.

"꼭 가족이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긴급히 연락할 일이 생겼을 때 수신 가능한 번호면 됩니다."

비교적 가깝다고 여기는 몇몇 지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가깝다고는 해도 가족도 아닌 처지에 낯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야 할 때의 난감함이 그려졌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내다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들에게 전화가 가는 실례를 범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머뭇거리자 데스크 너머 직원이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차피 형식일 뿐인데 뭘 그리 진지하게 고민하느냐는 반응이었다. 나는 휴대전화의 주소록에서 이름 하나를 골라 직원에게 보여주었다. 엉겁결에, 당사자의 사전 승인도 없이.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주고받으며 살갑게 지내온 O의 전화번호를 병원 서류에 올리고 나서,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족보다 친숙한 타인과, 타인보다 불편한 가족에 대해.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용인되는 온갖 침해와, 타인이기에 가능한 실용적인 소통에 대해.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새 나의 비상연락처가 돼버린 O는 흔쾌한 수락과 함께 이렇게 되물었다.

"만약에 진짜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땐 어쩌나요?"

O의 물음은 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이 30.1%라고 하니, 나나 O가 속한 프리랜서 직업군의 1인 가구 비율은 그보다 좀 더 높으리라. 하고 많은 그 1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얼굴은 가족일까, 타인일까.

"비상연락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보루는 긴급구호 시스템일 테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다는 건 지루하고 쓸쓸한 일이다. 아무래도 그렇다.



정길연 | 소설가

내 인생의
한 컷



방송인 박슬기가 2010년 뮤지컬 '넌센스' 무대에서 열연하고 있다. | 연합

안녕, 나의 꿈들아

누군가를 조명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대중에게 전하는 것이 내 직업이다. 대개 나를 일러 방송인 또는 리포터라고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지만 정작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는 적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가수가 되고 싶어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기를 반복하던 그때의 간절함을 떠올리면 이 또한 감사했다. 다만 내 마음 깊숙이 눌러둔 도전의식은 수시로 꿈틀거렸다. 그런 나에게 첫 뮤지컬 '넌센스'가 찾아왔다. 굳이 따지자면 스스로 찾아 나선 기회였다고 표현하는 편이 맞겠다. 오디션 공고를 보고 직접 문을 두드렸으니까.

첫 번째 관문을 지나 두 번째 관문 앞에 섰을 때였다. 당초 지원했던 배역이 아닌 다른 배역을 연기해볼 것을 요청받았다. 엠네지아 수녀였는데 상당한 수준의 복화술이 요구되는 역할이었다. 당황스러움이 앞섰던 게 사실이지만 별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양말에 눈과 입을 붙여 만든 복화술 인형을 들고 오디션장에 들어섰다. 내 입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마치 인형이 말하듯이 외쳤다. "안녕, 이것들아."

최종합격한 뒤 나중에서야 감독님들에게 전해 듣기를 그 인형을 만들어온 열정을 보고 뽑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넌센스'에는 총 다섯 명의 수녀들만 등장하기 때문에 각 역할마다 무대에서 채워야 하는 공백이 꽤 무거운 편이다. 어느 작품이든 주어진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첫 뮤지컬이고 특히 복화술 연기로 관객과 호흡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는 부담감이 컸다. 그래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노력했다. 이를테면 내 목소리와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면서 입술이 부딪히는 음절을 자연스럽게 소화해야 한다든지 호흡 정리가 깔끔해야 한다든지 등. 방송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공연 중간에 일종의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관객과 애드리브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방송 경험을 다수 녹여냈다.

돌이켜보면 무대에서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었던 것 같다. 그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꼽자면 '행복'이다. 매번 리포터로서 대중을 마주했기에 시청자가 나보다 인터뷰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었다. 그런데 뮤지컬 배우 박슬기를 바라보는 대중은 내가 어떤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집중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넌센스'를 계기로 다수의 연극·뮤지컬 무대에 올랐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배역을 맡은 때도 있었다. 너무 흔한 또는 뻔한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지난 시간을 통해 난 확실히 깨달았다.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기회는 반드시 열린다.' 평생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실천하는 이유다.

얼마 전부터 시작한 길거리 버스킹 역시 도전의 일환이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좁은 길목을 무대 삼아 노래한다. '꿈은 꿈은 꿈은 꿈은 꾸라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부딪쳐 해보는 거야'라는 가사 그대로 내 이야기를 노래한다. 오래된 친구가 내 버스킹을 보고 말했다. "너를 보며 마음 어딘가가 자극이 됐다." 나와 친구처럼 누구든지 마음 한편에 '진짜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꾹꾹 눌러오고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꺼내어 도전해보길 응원한다.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박슬기 | 방송인



뉴시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

"국가유공자 공헌과 헌신 기억하는 나라 되길"

강보라 | 위클리 공감 기자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전사자비 앞에 선 전국 16개 지부 선양부장들. 이들은 대통령 근조기 전수식을 거행하고 철저한 임무수행을 다짐했다. | ©영상미디어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은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을 최고 의전으로 예우하는 봉사단체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산하기관으로 2013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2136명(2018년 5월 기준)의 국가유공자 장례를 지원했다. 전국 각지 어느 곳이든 국가유공자 사망 시 당일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장례의전을 시행한다. 태극기와 유골함 증정을 시작으로 영구용 태극기로 관을 덮는 관포식, 조사 낭독과 추모곡 연주, 국립현충시설의 안장식 등 절도 있고 정중한 장례의전을 선보인다. 열여섯 명의 선양단원들은 노병의 전우로 구성돼 진한 전우애도 함께 느낄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보훈처장의 근조기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로 승격 적용돼 의미가 더욱 깊다. 장례식장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가 설치되는 것은 국가가 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국가보훈처 역시 '따뜻한 보훈'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잡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은 따뜻한 보훈의 최일선에 서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활동 일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복지 사각지대, 전우애로 막습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평균연령이 86~88세 정도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들도 70대 중반이 됐습니다. 모두 고령이라 그야말로 '밤새 안녕'이죠. 특히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울산지부는 독거회원들의 고독사를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장례의전도 좋지만 '살아 계실 때 잘하자'는 생각으로 다섯 개 지회에서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돌립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찾아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부 전화를 자주 하다 보니 생활상도 훤히 알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87세인 어느 참전용사 댁에 핸드레일을 설치해드리기도 했습니다. 2층에서 세들어 사시는데 계단이 가파르고 난간도 없어서 내려오다 다치기 십상이겠더라고요.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전우애로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효철(65) 울산지부 사무처장

국가유공자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국가유공자들 상당수는 빠듯한 삶 속에서도 국가에 대한 명예와 의미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 노력하려고 애쓰죠. 우리 충북지부 선양단원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나서기도 합니다. 특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봉사활동을 적극 찾는 편인데, 그중에서 이·미용 봉사가 대표적입니다. 청주 예일미용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 달에 한 번씩 도지부 지역 조손가정과 저소득 어르신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를 수년째 진행하고 있죠. 이 밖에도 농촌 일손 돕기, 교통안전 캠페인 등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과거의 영광과 혜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현재의 영광과 의미를 찾아나서는 사람들이죠.

김경시(74) 충북지부 사무처장

사후의 명예도 중요하나 생전의 영광만은 못하죠

요즘은 이웃과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들 역시 고인이 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업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고요. 그러다 돌아가시고 나서 선양단의 장례의전을 목격한 뒤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웃들 역시 생전에 어떤 분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돌아가신 후에 감사하며 안타까워하기 마련이죠. 사후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생전의 영광만은 못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생전부터 따뜻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애국심 함양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방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재범(63) 전남지부 선양부장



애국심 고취를 위해 유공자께 최고의 예를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것이 국가유공자들입니다. 선양단의 장례의전은 이들에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명예를 선사하지요. 일반 장례와 달리 유가족의 슬픔을 자긍심과 애국심으로 승화해주는 특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거의 매일 시신을 보고 엄숙한 장례행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명감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원끼리는 공덕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함께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근무한 35년지기 친구의 장례의전을 담당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진행했죠. 그 친구가 나중에 꿈에 나오기도 하더군요. 국가유공자들은 마지막을 국가가 예를 다해 배웅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한 분들입니다. 이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예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동진(73) 본부 행사지원대장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도 국방의 의무 솔선수범해야

전쟁 영웅은 소외계층 출신이 많습니다. 월남전 당시만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한 젊은이들이 많았죠. 군에 대한 대우와 인식은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않아 '군대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영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주였던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보급부대 소속으로 참전했고, 왕자들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한 일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사회지도층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군 출신의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힘들다는 부대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극한의 어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버팀목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죠.

김국진(64) 서울지부 선양부장

인간으로서 최소한 품격 지키게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꼭 해야

전국적으로 10여 건, 서울본부에서는 하루 평균 2건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참전용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제가 참석한 장례의전 중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의 마지막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 상사는 2017년 12월 신길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는데, 1967년 10월부터 포병부사관으로 2년간 목숨을 건 전투에 참전한 사람이었습니다. 28년간의 군 복무 끝에 육군 일등상사로 전역한 그의 마지막은 영예롭지 않았죠. 청력의 상당 부분을 잃고, 고엽제 피해로 거동마저 불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매서운 추위를 휴대용 가스버너로 버텨오다 화마(火魔)에 변을 당했습니다. 새까맣게 탄 김 상사의 집 안에서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서 뭉치와 라면봉지, 그을린 부탄가스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쓸쓸히 지낸 모습이라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져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세훈(64) 본부 선양단장



Weekly
공감
No.456
2018. 06. 04







01 **살며 생각하며**
비상연락망이 필요해

02 **내 인생의 한 컷**
안녕, 나의 꿈들아

04 **찾아가는 신문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
"국가유공자 공헌과 헌신 기억하는 나라 되길"

포커스

10 남북 정상, 29일 만에 전격 회동… 판문점 선언 이행 재확인
"만나자" "좋다"… 격식보다 실용

14 **기자회견**
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15 **외신 반응**
"깜짝 회동, 북미정상회담에 명백한 신호"

16 **| 기고 |**
위기의 북미정상회담을 구한 신뢰외교

18 **2차 회담 결과 발표문**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20 **국정종합**
노동시간 단축,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
소득분배 악화 매우 아픈 지점… 정책 역량 집중

22 **6·13 지방선거**
지역 따라 투표용지 최대 8장 혼선 주의
8~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트렌드

24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한 달 살아보기

26 한 달에 한 도시…
"이젠 서울에서도 행복할 수 있죠"

28 '풍문으로 들었소' 한 달 살아보기 좋은 곳

30 **정훈이 만화** | 이슈를 품은 역사 이야기

32 **인터뷰**
칸영화제 초청 영화 '버닝' 이창동 감독
"청년의 분노를 묻고 싶었습니다"

36 **문화공감**
추억은 그대로, 동네 목욕탕의 변신

39 **문화**
| 기고 | 지금의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지금

40 **라이프**
찻잔에 띄우는 희망 장애인 꽃차 소믈리에

42 **연재** | 모두의 철학 ⓫
'공자님 말씀'과 소확행

44 **연재** | 이주헌의 손 안의 예술사 ⓾
삶의 위로와 여유, 커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호국보훈의 달

46 나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

4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받은 **이애희** 씨
"국가 지원 고마울 따름…
이동녕 할아버지 업적 재평가됐으면"

50 백령도 지키는 해병대 **한대흠·정승현** 중위
최전방 해병대 부부 "나라사랑에 힘든 줄 몰라요"

52 **공감현장**
되찾은 공사관 113년 만에 태극기

54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
사상 첫 5조 원 '따뜻한 보훈'"

57 청년취업자 돕는 '3년의 기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인기몰이
"청년 목돈 마련 큰 매력" "기업주에도 좋은 제도"

60 월 10만 원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61 **이 주의 정책 뉴스**

62 **문화마당**

64 **참여공감**



하미라영 CC

Cover Story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병의 전우로 구성된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은 호국 영웅의 마지막 길을 최고 의전과 예우로 대우하는 봉사단체이다. 이들의 활동은 유가족의 슬픔을 자부심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보는 국민들에게는 애국심 함양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특별한 의식이 된다. 국가를 위해 공헌과 헌신을 한 사람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다는 전례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발행일 2018. 06. 0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도종환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044-203-3014
제작협력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팩컴코리아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수신자부담)
080-906-4480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OPEN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5월 26일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정상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회담 결과를 시사하듯 환한 웃음으로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 청와대

남북 정상, 29일 만에 전격 회동… 판문점 선언 이행 재확인

"만나자" "좋다"… 격식보다 실용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모든 게 파격이었다. 대신 격식도 의전도 간소했다. 공식 수행원도 최소화한 소탈한 만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회담을 가졌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후 꼭 29일 만이었다. 회담은 지극히 실용에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마주 앉으려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는데 필요할 때 이렇게 연락해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것 같다"면서 회담에 임했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하루 만에 진행됐다.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자고 한 첫 정상회담의 약속이 실현된 셈이다. 5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무산을 언급한 데 이어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공개된 시점이었다. 북미정상은 회담 진행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성사 여부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불투명했다. 문 대통령은 길잡이 역할에 다시 나섰다.

친구 간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회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인 5월 27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할 경우 북한과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서로에게 전달했다. 이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재는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했다. 북미는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개최를 목표로 속도를 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조 헤이긴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싱가포르에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뉴욕에서 일정과 의제를 중심으로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북미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도 줄어들었고 회담 무산에 대한 우려도 불식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에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남북은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군사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했다. 또한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1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남북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채워졌다. 대화 테이블에도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만이 배석했다. 요청 하루 만에 이뤄진 급작스러운 만남은 소탈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의전 차량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잘 못해드려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좋은 열매를 키워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대통령을 성대하게 맞이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양에 방문해서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남북 정상이 이렇게 쉽게 '만나자', '좋다' 해서 만났다는 것도 남북 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확약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도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평양과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며 만남의 의미를 높이 샀다. 실질적 대화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마다 책임과 본분을 다하자고 했다. 남북관계도 국제사회도 모두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담의 본질은 북미관계의 중재 외에도 두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의 책임 있는 이행 자세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 문 대통령은



1 5월 26일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회담이 끝난 후 남북 정상은 붉은색 카펫이 깔린 길을 따라 걸었다. 현관 좌우에는 북한군 병사들이 도열했다.
3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보다 실용적 관점에서 진행됐다. 회담 테이블에 남북 정상 외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만이 배석했다.
4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맞이하고 있다. | 청와대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북미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어 이를 통해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한에서 김 위원장의 인기와 기대가 높아졌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라며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한곳에 앉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약속 이행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회담을 앞둔 시기에 함께 협력해나가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오늘 만남이 뜻 깊다"면서 북한을 예우하는 자세도 보였다. 아울러 남북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전한 5월 2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했다. 상임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우리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이행이 더 탄력 받는 계기가 됐으며 남북 정상 간의 신뢰를 보다 돈독히 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진단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고위급회담 개최 등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배경과 그 의미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 그런 사정들을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요청해왔다. 남북 실무진이 통화로 협의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피력했다.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의 적대관계 종식과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종식할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저는 양국에 서로의 의지를 전달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미 간 진행하는 실무 협상 속에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도 포함돼 있다. 이 실무 협상이 순탄하게 끝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북미 양국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도, 6월 12일 본회담도 잘되리라 기대한다.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나?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뜻이 같다고 해도 어떻게 실현해갈지는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할 문제로 그에 대한 생각을 앞질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했는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거듭 전했다. 북미 간 회담은 상대의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북미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건 미국도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는가?

저의 모든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그에 반드시 필요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들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

남·북·미 3자 간 핫라인 통화(직통전화)를 하는 건 어떤가?

핫라인 통화를 위해서는 통신 회선이 구축돼야 한다. 남북 간 핫라인은 최근 개설됐는데 앞으로는 북미 간에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전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덧붙여 회담 후 바로 발표하지 않은 점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북측의 형편 때문에 회담 내용은 오늘(5월 27일) 보도할 수 있다고 해서 회담 사실만 먼저 알리고 논의 내용은 따로 발표하게 됐다. 이 점 양해를 구한다.



“깜짝 회동, 북미정상회담에 명백한 신호”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소식에 외신들도 놀라움을 나타냈다. 남북 정상의 ‘깜짝 만남’을 속보로 전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도맡은 문재인 대통령을 부각시켰다.

뉴욕타임스는 5·26 남북정상회담을 북한 핵무기의 운명을 둘러싼 외교 소용돌이 속에서 이뤄진 “새로운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막기 위해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다는 점, 북미 정상의 만남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수개월 동안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롤러코스터 데이’에 이어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취소와 재개를 오가는 시점을 빗대어 묘사한 것이다. 신문은 외교적 격변 속에서 남북 정상이 긴급하게 만났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바라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차 비밀 남북정상회담은 일련의 외교 전략에 드라마틱한 전환”이라고 했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트위터를 전한 것을 두고 분위기가 신속하게 반전됐다고 평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지 이틀 만에 남북 정상이 ‘깜짝 회동’을 했다는 사실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전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 CBS 역시 문 대통령이 거의 취소될 뻔한 북미정상회담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국내외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 북미 중재 역할 재입증

로이터통신은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데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명백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외교적 격랑이 몰아치는 국면에서 분위기를 뒤집는 이벤트였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은 남북 정상의 깜짝 만남은 북미정상회담을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BBC도 판문점의 깜짝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지도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북미 간 야기된 오해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북미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게 샀다. 일본 NHK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미 간 긴장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대화 방침을 김 위원장에게 전했을 거란 관측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일부 외신들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의지를 두고 북미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회담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기의 북미정상회담을 구한 신뢰외교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양측 간 기싸움과 줄다리기가 치열해졌다. 결국 북한이 5월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며 남북관계는 난관에 부딪혔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이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일괄 타결 해결을 주장했다. 다만 속전속결 방식이라면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해결법도 일부 도입할 것이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만 실현하면 체제 안전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차 방북 예정인 한국 언론인 명단 접수를 거절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들의 입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알렸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대미 비판 성명에 분격한 탓이었다. 북미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남북관계는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 한미동맹 신뢰도 의심받으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다. 다행히 김계관 제1부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정중한 담화를 발표했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신속한 성의 표시를 수용하고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하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은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 직후 문 대통령과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고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이로써 단 하루 만인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면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데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관해 사전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또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며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군사 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북미 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북한의 대남 몽니와 미국과의 줄다리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벼랑 끝 전술은 남북, 북미, 한미 관계를 동시에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하고 포용력 있는 외교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얻은 것이 위기 시에 진가를 발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해 남북 정상 간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어려움에 처한 남북관계를 재가동시켰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으면서 북미 지도자의 이견 차를 해소해 북미정상회담이 재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살렸다.

북미 양측은 종전보다 진지한 자세로 다양한 협상을 진행했다. 판문점에서 최선희 부상과 북핵 협상 베테랑인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협상을 가졌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경호, 의전, 일정을 조정했

> *정부는 북미 합의를 우리가 작성한다는 각오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북미 회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북핵과 한반도 안보의 주요 당사자다.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이제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지휘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지었다.

남북 정상은 더욱 친숙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 남북고위급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가 대립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을 저지하고, 남북 간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 인도주의 지원과 체육, 문화, 학술, 종교,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이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해제로 이어지게 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해야 한다. 제재가 해제되면 철도·도로 연결과 개보수 등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전력 등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북미, 최소공배수보다 최대공약수부터 이뤄야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북미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측 요구사항의 최소공배수보다 최대공약수만 합의해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부터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는 양측의 신뢰가 부족하므로 일정 시점까지 적당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현재·미래 핵을 신고→동결→사찰→폐기→사찰 과정을 거쳐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이후 북한에 보상과 체제 보장을 제공하면서 과거 핵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2단계 접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핵 폐기 완료 시점을 명기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받아들이면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동기 유발 보상을 제공하는 게 지혜롭다.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고 상대방 수도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미국은 북미 정상의 합의 사항을 상원에 조약 형태로 인준도 받아야 한다. 만약 제재를 완화한 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는 북미 합의를 우리가 작성한다는 각오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북미 회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북핵과 한반도 안보의 주요 당사자다.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도 초당적으로 단합해 진정으로 축원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 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기간 2018. 4. 1.(일) ~ 6. 30.(토)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상내역

등급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250만원 상당)
우수상(2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3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심사방식

- **(1차 : 접수제안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
- **(2차 : 공모제안 경진대회)**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

선정기준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경진대회 대상작 발표

2018. 10월 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경진대회 및 시상식

2018. 11. 7.(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일 및 경진대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6, 6579**

법제처

노동시간 단축,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
소득분배 악화 매우 아픈 지점… 정책 역량 집중

선수현 | 위클리공감 기자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64시간보다 무려 305시간 더 많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노동시장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5월 17일 신규 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예상치 못한 애로가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 충원이 어려워 보완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의 현장 상황 점검과 대책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법적 금지 없는 한 적극적 행정 추진해야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이 확정된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 군산·거제·창원·통영·고성·영암·목포·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상조 공정

거래위원장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고가 있었다.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긴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같은 제도가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이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움 되는 행위에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혜택 제공에도 일일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법에 없는 한,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 한다"고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에 있는 '침류각' 안내판을 제시하며 '공공언어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유형문화재 침류각은 1990년대 초 전통가옥이다. 안내판에는 세벌대 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구 등 일반 국민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적혀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매우 어렵게 표시돼 있는 것"이라며 "좋은 우리 한글로 바뀌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공원, 수목원, 등산로 등의 표지판에도 최대한 쉬운 용어로 일반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공공언어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가계소득 감소 원인·대책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경제부처 장관, 정책 관련 참모들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경제 상황 등을 논의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거시경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 점검은 5월 28일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정책이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국민과 소통하며 일방적인 드라이브는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계층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지역 따라 투표용지 최대 8장 혼선 주의
8~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장가현 | 위클리공감 기자

6월 13일에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7가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12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선거를 통해 총 4016명이 선출되는 대규모 선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31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9363명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5일 전인 6월 8일~9일 이틀간이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투표소에서 받는 투표용지의 수도 많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돼 투표자 한 사람당 투표용지를 총 7장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8장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등 총 5개 선거를 실시해 투표용지가 총 5장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 시의원선거, 비례대표 시의원선거 등이 열려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표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된다. 사퇴나 등록무효 발생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일 때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나 '등록무효'가 표기된다.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후보가 사퇴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나 등록무효를 표기하지 않지만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 등록무효 사실이 게시된다.

용지마다 한 정당, 한 후보자만 선택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고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난 5월 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선거 70주년 및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사전투표 안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후보자 한 명만 기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는 많은 유권자의 관심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에서 17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인 77.6%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4년에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64.9%보다 12.7%p 증가한 수치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0.9%였다. 연령대별로는 19~20세 이하 54.3%, 30대 75.7%, 40대 71.0%, 50대 72.7%, 60대 75.6%, 60대 75.6%, 70대 이상 80.0%로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지난 제6회 지방선거 결과인 55.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15.1%p 증가했고, 모든 연령층에서 고루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3%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지난 지방선거(16.4%), 제19대 대선(17.1%) 당시 조사 결과보다 각각 13.9%p, 13.2%p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3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을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등 새로운 선거범죄가 늘고 있어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 확산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중립과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렇게!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당일 급한 일이 생겨 투표소에 가기 힘들다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은 6월 8~9일 양일간이며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절차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해당 자치구·시·군 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둔 관내 선거인은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해당 자치구·시·군 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지를 둔 관외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한 다음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투를 봉하고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한 달 살아보기

유슬기 | 위클리공감 기자

"하루 종일 도서관에 바닷가, 돈이라곤 10원도 안 썼는데 행복하다니,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다. 비싼 교구와 책들, 옷, 고급 교육기관 앞에서 돈 때문에 갈등했던 게 몇 번이던가. 그때마다 아이의 반응은 엄마의 기대와 달랐다. 비싼 장난감 대신 장난감 포장 박스를 가지고 더 오래 놀고, 애써 찾아간 명승지보다 그 앞의 지렁이에 더 관심이 많았다. 아이의 행복과 돈이 상관없다니, 다행스럽기도 하고,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2010년 여름, 아홉 살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을 데리고 한 달간 제주살이를 하고 돌아온 일명 '꽃님 에미' 전은주 씨. 그의 이야기는 이듬해 책으로 출간됐고 제주에서 월세방을 얻어 한 달간 여행한다는 아이디어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텔레비전, 컴퓨터, 장난감'이 없는 삼무(三無)도에서 엄마와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눈부시게 자랐다. 식당에서 "물 좀 더 주세요"도 못하던 딸 꽃님이는 낯가림이 사라졌고, 꽃님 꽃봉 남매는 친해지고 순해졌으며 명랑해졌다.

그 후로 매년 1000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는다. '효리네 민박'의 성공으로 제주는 손에 잡히는 판타지가 됐다. '제주도 좋은 방 구하기' 카페에 따르면 6월이 되면 '제주도에 한 달 살이 집이 있는지' 묻는 전화가 하루에 10통 이상 온다고 한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르지 않을 내일 첫바퀴에서 내려 비행기로 갈아타면 두 시간 반 만에 새로운 풍경이 시작된다. 그곳에는 바다의 내음과 오름의 정기, 바람의 노래가 두루 담겨 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집 '레이지마마'를 운영하는 이연희 씨는 '나는 왜 떠나려고 하는가'를 스스로 묻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누군가는 '강추'라고 했던 맛집이 내 입맛에는 그저 그럴 수 있듯, 다른 사람들의 궤적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다 보면 숨 가쁘고 조급해져





도시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서다.

예를 들어 아토피가 심한 아이 때문에 '자연식으로 생활하기'로 한 달 살기 목적을 정했다면 수확물이 많은 봄이 제일 좋다. 3월이면 순이 돋는 쑥과 달래, 각종 야생초와 자연산 산나물이 지천에 널려 있어 몸만 부지런하면 향긋한 나물과 쑥국, 쑥범벅 등으로 몸보신을 할 수 있다. 제주살이의 재미는 이삭줍기도 빼놓을 수 없다. 감자, 무, 당근, 콜라비, 양배추 등 다양한 밭작물의 수확이 끝나는 봄에는 크기가 고르지 않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아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밭에 버려진 작물이 많다. 이걸 주워 먹는 걸 이삭줍기라고 한다.

한 달 살아보기 열풍, 국내 넘어 해외로

제주가 된다면 다른 곳이 안 될 리 없다. 제주도 한 달 살기는 강원도 한 달 살기, 목포 한 달 살기 등으로 변주했다. 이는 다시 발리 한 달 살기,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라오스 한 달 살기 등으로 확장됐다. 일주일은 짧고 1년은 길다. 한 달, 길지도 짧지도 않은 720시간은 한 마을에서 여행객이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보기엔 적당하다. 현지인과 여행객 사이에서, 호젓하게 마을을 응시하고 떠나온 삶을 관조할 수 있는 날들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의 섬 크레타를 여행하면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썼고, 김훈은 〈흑산〉을 쓰기 위해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5개월을 살았다고 한다. 〈설국〉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일본 니가타 현에 살면서 글을 완성했다.

한국어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강점을 지닌 국내든, 잠시 다녀오기엔 아쉬운 해외든 인생에서 '한 달'은 길게 이어지는 인생의 영수증에서 '쉼표'를 한 번 찍을 기회다. 이 쉼표가 어떤 수익을 남겼는지 대차대조는 해봐야 알겠지만, 먼저 체험한 이들이 증언하는 바는 "당신도 떠나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선문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게을러지라"고 한다. '레이지마마'는 누리집에 '게으른 엄마들을 위한 한 달 살기 집'을 소개한다. "아이들을 위해 너무 헌신하지 말아주세요. 살짝 방치하면 엄마도 아이도 즐겁습니다"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세계를 여행하며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는 박기연 작가는 '여행하는 사업가'로 산다. 그는 자신의 책 〈덜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법〉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고등학교가 오후 3시에 끝나는 나라도 많고,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회식 문화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다"고 썼다.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는 경험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에 대해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확대해 의문을 가져보는" 기회가 된다. 그러려면 일단 게을러져야 한다. 일상의 쳇바퀴에서 내려 다른 나라의 쳇바퀴를 보면서 그 틈바구니를 살필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다. 영화 '치킨런'을 보면 양계장에 사는 닭은 울타리가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에게 주어진 길은 치킨이 되는 것뿐이다. 상상하려면 일단 울타리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경쟁이 전부인 나라에 살던 이들은 학업도 취업도 출산도 육아도 모두 경쟁한다. 그러다 '한 달'을 쉬어보면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생의 전환점은 의외로 빈둥거리는 시간에 찾아온다. 당연하다 여겼던 삶의 트랙이 낯설어 보이기 시작하면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는 성공이다.

한 달에 한 도시… "이젠 서울에서도 행복할 수 있죠"

유슬기 | 위클리 공감 기자



김은덕·백종민 부부가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포즈를 취했다.

결혼 전 두 사람은 이런 약속을 했다. 언젠가 "아르헨티나에서 1kg에 1만 원 하는 소고기를 먹어보자"고.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처음에는 결혼하고 5년 안에는 가보자는 생각이었는데, 굳이 미룰 이유가 없었다. 막상 가보니 아르헨티나는 생각보다 근사한 곳이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한 달은 '한 나라 한 도시'라는 두 사람만의 룰에 변수가 됐다. 결국 한 달을 더 머물렀다. 두 사람의 여행은 그렇다. 룰을 정하는 것도, 그 룰을 바꾸는 것도 둘이 결정한다. 남편 백종민 씨는 말했다.

"혼자라면 시도도 못했을 일이에요. 은덕 씨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은덕 씨가 주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저는 그 시도의 디테일을 만들어요. 서로가 너무 다른데 달라서 잘 맞아요. 쑥스럽지만 '천생연분'이 이런 건가 싶어요."

지금이야 수줍게 '천생연분'이라는 말도 꺼내지만, 자기애가 강했던 남자와 여자는 결혼으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면' 부부이기 이전에 독립된 개체로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둘은 이 마음을 '결혼 선언문'에 담았다. 두 사람이 쓴 결혼 선언문은 "인생의 목표를 집의 평수를 넓히는 데 사용하는 대신,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선포다. 이 선포의 내용은 "세계 여행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현지인의 삶 안으로 들어가보는 여행

"한 달이라는 시간은 참 적당했어요. 처음 한 주는 그 동네와 친해지는 데 보내요. 다른 관광지를 가기보다는 마을 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길을 익히죠. 그러다 보면 친숙해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줘요. 직접 태워서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두 주를 지내다 보면 다시 떠나야 할 시간이 찾아와요. 그럼 정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음 여행지로 여정을 계획하죠."(김은덕)

관광 명소에 발도장을 찍는 여행이나 맛집 투어는 두 사람이 원하는 여행의 방식이 아니었다. '각 도시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는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 정도로 현지인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내밀한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여행자보다는 가까운, 현지인보다는 먼 이방인의 눈으로 본 세상은 날마다 달랐다. 달라진 건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는 몸이 자주 아팠어요.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고, 전반적으로 면역력에 문제가 있었겠죠. 매일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 어느새 '아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이 쫓기듯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백종민)

패키지여행이 아니니 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다.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며 움직여도 한 달은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보통 이렇게 말한다.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인 20대에는 여행 갈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다. 직장인이 되고 난 30대에는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다. 두 사람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세계 여행을 하는 데 보통 한 사람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든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그 정도 비용으로 두 사람이 다녀왔어요. 항공권이나 숙소도 미리 예약해두고 출발했죠."(김은덕)

이란의 테헤란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합쳐 한 달 68만 원으로 살았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유럽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도 주거비와 생활비가 100만 원 남짓이었다. 두 사람의 숙소는 주로 여행지의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했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이스탄불처럼 언제든 마음을 열고 환대해주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의외로 마음을 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도시도 있어요. 그럼 그 속도에 맞춰서 사는 거죠."(김은덕)





24개월간 한 달에 한 도시씩 살아본 김은덕·백종민 부부 | ⓒ영상미디어

'당연한 것은 없다'는 감사함

두 사람은 2년 동안 약 60개 도시를 다녀왔다. 그사이 '한 달에 한 도시'를 여행하는 삶에 익숙해지는 순간도 왔다. 여행이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 두 사람은 초심을 마음에 그리고 몸에 새겼다.

"브라질에 갔는데 여행에 대한 감각이 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왼팔 위쪽에 우리가 그동안 다녀온 도시들을 새겼어요. 그때 그 마음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요."(백종민)

두 사람이 결혼 선언문을 써두고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한 달 살기'의 감각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일상의 속도에 매몰되지 않는 건 그런 노력의 결과다.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여행 후에 본 서울은 달라요. 서울에 흐르는 한강도 달라 보이고, 우리나라의 80%를 차지한다는 산도 달라 보여요. 저희는 지금 반지하 집에 살지만 저희 둘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소중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을 지킬 힘도 생겼고요."(김은덕)

이들은 더 이상 서울 시민이 아니다. 세계와 그들의 삶을 채워 넣은 세계 시민이다. 혹자는 묻는다. '한 달에 한 도시'를 살아 너희에게 남은 게 무엇이냐고.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남았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 밤에 잠자리에 누워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떠올려도 그 기억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처음 여행을 떠날 때는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이 지금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한 사람이 이어 말해도 같은 이야기가 될 정도다. 두 사람의 삶을 걱정했던 부모님도, 이제는 자식의 선택을 지지한다. 이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 인터뷰를 마치고 두 사람은 다시 일본으로 떠난다.

"이제 서울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김은덕·백종민)

'풍문으로 들었소' 한 달 살아보기 좋은 곳

유슬기 | 위클리 공감 기자

독일의 저널리스트 마이케 빈네무트는 퀴즈쇼에 출연했다가 50만 유로 상금의 주인공이 된다. 우승 전 그는 '상금을 받는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한 달에 한 도시씩 총 열두 도시를 여행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이 말은 현실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나는 떠났다 그리고 자유를 배웠다〉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2011년 1년 동안 그는 시드니, 부에노스아이레스, 뭄바이, 상하이, 런던, 바르셀로나, 텔아비브, 아디스아바바, 아바나 등의 도시를 다녀왔다.

남의 이야기 같은가. 퀴즈쇼 우승이라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떠날 수 있는 여행지는 아직 우리 곁에 있다. 마이케 빈네무트의 행운이 행복이 된 건 주저 없이 떠났기 때문이다. 한 달 살아보기는 국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가까운 국내부터 나라 밖 나라까지 한 달 살기 좋은 여행지를 담았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어떤 식으로 한 달을 사느냐에 따라 숙소의 종류도 달라진다. 제주도는 '한 달 살기'의 진원지인 만큼, 도심과 바닷가 올레길 주변 등에 장기투숙숙소가 대부분 마련돼 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전문 업체인 '자연하우스'는 80%의 이용객이 엄마와 유아, 은퇴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1인 방문자와 모녀 방문이 뒤를 잇는다. 구성이 다양한 만큼 '한 달 살기'의 스타일도 제각각이다. 360개의 오름에 집중하는 이들도 있고, 책방과 도서관에 머무는 사람, 낚시와 골프를 즐기는 사람 등 다양하다. | 조선닷컴

한 달 살기 비용 약 100만 원
한 달 집세 평균 약 70만 원
한 끼 식사 마트나 시장과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으면 식비가 절감된다.
참고 성수기인 방학시즌에는 숙소비가 10만~20만원 가량 오른다.



강원도 한 달 살기

강릉과 속초를 따라 강원도 해안도시가 '느리게 살기'의 대안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로 유입 인구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가격 역시 폭등했다. 강원도의 경우 제주도 부럽지 않은 자연환경과 접근성을 갖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이 더 좋아졌다. 겨울에는 평창송어축제 등의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고, 여름에는 늘 곁에 있는 해변에서 휴양 등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강원도 한 달 살기' 펜션을 운영하는 바다정원 펜션 관계자는 "비염이나 알레르기 등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방학을 맞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주인장 부부 역시 강원도에서 지낸 지 7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증상이 호전됐다는 증언이다. | 한국관광공사

한 달 살기 비용 약 70만 원
한 달 집세 평균 약 40만 원
한 끼 식사 사 먹느냐 해 먹느냐에 따라 달라짐
참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에서 1시간 40분에 도착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발리 한 달 살기



수년 동안 전 세계 유목민들이 몰려온 '한 달 살기'의 성지다. 외지인들이 많은 편이지만 그만큼 숙소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신혼여행지로 이곳을 찾았던 이들이 '한 달 살기'를 실천해보기 위해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자연도 있지만 와이파이도 되는 도시'라 젊은 노마드들이 선호한다. 처음에는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잡더라도 현지에서 더 저렴한 숙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다녀온 이들의 설명이다. 2002년 발리를 여행한 뒤 발리의 매력에 빠져 10년간 '발리지기'로 발리 전문 컨설팅 회사인 '발리지기 닷컴'을 운영하는 한동엽 대표는 발리를 '고대 문화와 예술의 감성이 살아 있는 곳'으로 소개한다. | 153 tour

한 달 살기 비용 약 90만 원(항공료 제외)
한 달 집세 평균 약 40만 원
한 끼 식사 약 3000~4000원
참고 한 달에 약 3만 원이면 자전거를, 약 5만 원이면 스쿠터를 빌릴 수 있다.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치앙마이는 태국 남쪽에 있는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700km 지점에 있다. 때문에 '예술가들의 아지트', '떠오르는 한 달 살기 여행지' 등으로 불린다. 치앙마이에는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대신 예쁜 목기에 로컬 음식을 내주는 식당과 근사한 헌책방이 있다. 〈치앙마이 반할지도〉를 쓴 최상희 작가는 동생과 함께 작은 출판사 '해변에서랄랄라'를 운영하며 여행의 기록을 책으로 만든다. 그에게 치앙마이의 기억은 '다른 여름 나라에 비해 쾌적한 공기와 적당한 습도'로 남아 있다. 주말마다 야시장이 열리는데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가 많다. 우산, 보석, 그릇 등을 만드는 수공예가 발달해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볼 수도 있고 소장할 수도 있다. | 모두의 여행

한 달 살기 비용 약 80만 원(항공료 제외)
한 달 집세 평균 약 39만 원
한 끼 식사 약 2000~3000원
참고 2~5월은 농지를 태우는 기간이라 공기의 질이 좋지 않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 달 살기

유럽에서 그나마 저렴한 생활비로 장기 체류하기 좋다.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노마드 리스트'에서 뽑은 '한 달 살기 좋은 유럽 도시' 중 하나다. 프라하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비교적 관광객이 적어서 인기가 많다. 시내 카페에서 쉽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빵과 와인, 커피와 맥주가 싸고 맛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국처럼 온천 문화가 있어 휴양을 즐기기도 좋다. 주말마다 오페라와 클래식 공연이 열리는 것도 풍성한 볼거리다. 〈헝가리에서 보물찾기〉를 쓴 김병선 교수는 헝가리를 '유럽의 동양'이라고 부른다. 그가 찾은 최고의 보물은 우리와 닮은 '사람 사이의 정'이라고 한다. | 노마드 리스트

한 달 살기 비용 약 120만 원(항공료 제외)
한 달 집세 평균 약 60만 원
한 끼 식사 약 6000~7000원
참고 뼈가 시리도록 추운 동유럽의 혹독한 겨울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244년 전
공신의 후예
정훈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를 기리며 그들의 가족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제도는


고대 국가 성립 이전인 부족사회 때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제도다.


보훈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우리 역사에도 나라별로 보훈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신라는 상사서(賞賜署)가 그 역할을 했고


고려는 건국 직후, 사적(司績)을 설치했고
상서고공사(尙書考功司)로 고쳤다가
공민왕 때 고공사(考功司)로 바뀌었는데
고려 건국 초
사적
성종
상서고공사
공민왕
고공사


고려는 공신을 책봉할 일이 발생하면
임시 기관인 공신도감을 설치했다.


고려 때까지는 관리의 공과를 조사하고
심사하는 관서에서 보훈 업무를 겸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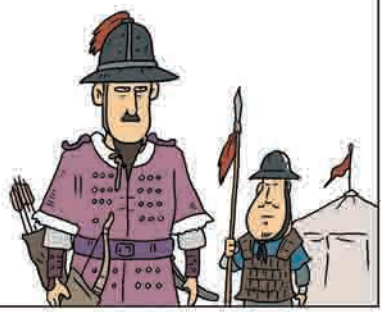

조선은 공신과 보훈을 전담하는 '충훈부
(忠勳府)'라는 관서를 따로 두었다.
忠勳府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와
역할이 같소이다.


조선 초에 공신도감·충훈사로 불리다가
세조 때 충훈부로 승격되었는데
忠勳府
忠勳司

조선 시대에 '부(府)'는 대체로 격이 높은 관서에 붙는 단위 명칭이다.



임진왜란 때의 명장인 정기룡 장군 휘하에는 이름도 비슷한 정구룡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1598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함안 첨정 정구룡은 왜군의 매복 공격을 받고 조총에 맞아 전사했다.



36세의 나이에 전사한 그는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봉됐다.



1840년(헌종 6) 경상도 함안





신역(身役) : 군역과 부역 등 백성이 몸으로 치르는 일



정구룡 장군의 8세손 정사은은 군수에게 아들의 신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함안 군수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했다.



2년 후, 암행어사가 함안에 왔을 때 정사은은 청원서를 냈고



어사는 정사은 아들의 신역을 면제하라는 지시를 군수에게 내렸다.



244년 전에 사망한 공신의 후손까지 예우하던 조선의 보훈정책은 나라의 운명이 다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CGV아트하우스

칸영화제 초청 영화 '버닝' 이창동 감독

"청년의 분노를 묻고 싶었습니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實際)로 있는 것인가 실재(實在)하는 것인가?"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을 본 관객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버닝'은 영화가 전개되는 내내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없다. 감독의 말마따나 '미스터리한 영화'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는 관객의 평도 '모호하다', '난해하다'는 말이 대부분이다.

이창동 감독은 영화로 관객에게 질문한다. 그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질문과는 다르다. 익숙하지 않은 화법으로 대답하기도 힘든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감독은 '버닝'으로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없는 것인데 있고, 있는 것인데 없는 것처럼 관객이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왜 해미가 사라졌고 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는 관객에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확답이 아닌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표가 돌아왔다.

'버닝'은 분노를 말하는 영화다. 이창동 감독은 자신이 젊은 세대였던 시절에는 정치적 문제든 계급에 관한 문제든 세상에 답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다르다. 세상에 분명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 문제가 정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누구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창동 감독은 여기서 청년의 분노가 시작됐다고 봤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답을 찾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보는 사람마다 자신의 서사를 바탕으로 영화를 소화하면 된다. 서사에는 저마다 추구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영화 내용에 빗대어 말하자면 벤이 해미를 죽였을 거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종수는 벤을 의심한다. 종수는 자신의 서사대로 생각할 뿐이다.

이창동 감독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하다. 그가 만든 영화처럼 미스터리하다. 체질적으로 누군가의 앞에 나서는 일을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한다. 이창동 감독은 인터뷰 내내 "감독과 작가는 영화로 말해야지 설명하려 들면 안 되는데" 하며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다. 관객이 느끼길 바라며 만든 영화지만 인터뷰를 하니 설명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감독은 작품으로 말한다"… 6편 중 5편 칸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한 '버닝'은 작가 지망생이자 유통회사 알바생인 '종수(유아인)', 종수의 어릴 적 동네 친구 '해미(전종서)', 정체불명의 남자 '벤(스티븐 연)' 세 사람에게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을 담았다. 영화 제작이 결정된 후 곧이어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제71회 칸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버닝'을 경쟁부문에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버닝'이 칸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면서 이창동 감독은 연출작 여섯 편 중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시' 등 다섯 편이 칸영화제에 소개되는 전대미문의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이후 '버닝'의 소식은 칸영화제를 빼놓고 말하기 힘들어졌다. 마치 영화제를 위한 영화인 것 같은 인상을 지우기 힘들었다. 이 감독 역시 여기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상하게 '버닝'은 개봉 전부터 수상 여부에 마케팅을 올인한 것 같았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칸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져서인지 오히려 관객의 실망감이 컸던 모양이에요. 영화를 만든 감독의 입장에선 미안한 일이죠. 만약 '버닝'이 칸에서 본상 수상을 했다면 한국 영화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국내에서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었지만 해외에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데일리〉는 '버닝'에 역대 최고 평점을 매겼다. 칸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는 "훌륭하며 강한

영화"라며 "순수한 미장센으로 영화의 역할을 다하며 관객의 지적 능력을 기대하는 시적이고 미스터리한 영화"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수상에는 실패했다. 이창동 감독은 이미 여러 번 칸 영화제를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상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칸에 오는 작품들 대부분은 예술영화까지는 아니어도 개성이 강한 영화들이다. 개성이 강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보는 이의 호불호가 나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창동 감독은 '버닝'도 그럴 줄 알았지만 의외의 호평이 이어져 의아했다고 했다. 대놓고 황금종려상을 언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칸에서는 너무 평가가 좋은 작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창동 감독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내심 불안했다. 비록 영화는 본상 부문에서 무관에 그쳤지만 영화평론가와 전문기자들이 선정하는 국제비평가연맹상과 최고기술상인 벌킨상을 수상했다. 감독 개인으로서는 초청 자체로도 만족할 만하지 않았을까.

"칸의 레드카펫은 영화인의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그 레드카펫을 밟길 갈망하지만 나는 체질적으로 레드카펫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치 몸치가 춤을 추는 것처럼 걸어가면서 미소를 짓는 게 참 불편해요. 게다가 '버닝'은 종수의 이야기잖아요. 영화 첫 공개를 칸의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했는데 레드카펫은 벤의 화려한 색과 닮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죠."

오랜만에 방문한 칸에 대한 소감을 털어놓던 감독에게 함께 작업한 배우 유아인과 스티븐 연의 호흡은 어땠는지 물었다.

"유아인은 촬영장에서 제가 요구하거나 원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줬어요. 극중 종수는 사실 감정이든 뭐든 잘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예요. 배우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직업 자체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종수라는 인물은 연기하기 힘든 캐릭터예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기 힘든 역인데도 아주 잘해줬어요. 스티븐 연이 연기했던 벤은 모호함의 대상이자 미스터리 그 자체예요.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몸으로 표현하기는 힘든 인물이죠. 스티븐 연은 처음부터 잘해서 놀랐어요. 타지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았던 경험, 힘들게 배우생활을 하다가 성공을 거둔 경험 때문인지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벤의 뭔지 모를 미묘한 느낌은 스티븐 연이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새롭고 낯선 것을 계속 시도해야죠"

'버닝'은 파격적이고 강렬한 엔딩 신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벌거벗은 남자가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은 감독이 어떤 의도로 연



지난 5월 8일 개막한 칸영화제에 참석한 영화 '버닝' 팀(왼쪽부터 이창동 감독, 배우 유아인, 전종서, 스티븐 연) | CGV아트하우스

영화 '버닝' 스틸컷
| CGV아트하우스






출한 장면인지 궁금했다.

"그 장면에 의도가 숨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던져놓고 관객이 영화적으로 느끼기를, 이미지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길 바랐어요. 벌거벗은 남자는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요. 그의 표정이 두려워하거나 수줍어하는 복잡한 감정, 그게 어떤 감정인지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버닝'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지만 세상과 미스터리에 대한 무력감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던져놓고 싶었죠. 한편으로는 종수의 소설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도 여자 친구도 없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종수가 어떤 소설을 쓸지, 그 소설은 어떤 의미를 줄지 관객에게 묻고 싶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버닝'을 본 관객의 평은 극명하다. 감독 본인도 호불호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영화가 대중에게 익숙한 영화적 관습에서 벗어나 있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관객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을 그대로 질문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점은 의외였다. 이번 영화로 이창동 감독은 관객의 반응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버닝'은 개봉하자마자 시련을 맞았다. 영화가 개봉한 5월 17일 당시 박스오피스를 주름잡고 있는 영화는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 '데드풀 2'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였다. 대진 운이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다. 거기다 어려운 영화라는 낙인이 찍히다 보니 흥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독은 이미 '버닝'이 흥행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예견했다.

"'버닝' 전에 개봉했던 영화도 항상 어려운 승부를 해야 했어요. 저는 항상 상업영화를 만들었고 상업영화로 마케팅을 해왔어요. 이번 영화도 상업영화예요. 당연히 흥행이 힘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영화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해볼 만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제작하게 됐어요. 사실 영화의 흥행은 마케팅할 당시 분위기에 따라 반응이 많이 달라져요. '버닝'이 대중에게 쉬운 영화는 아니지만 대중적인 접점을 찾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영화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관객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새롭고 낯선 것을 계속 시도해야 해요."

앞으로도 이창동 감독은 새롭고 낯선 시도를 꾸준히 할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버닝'을 준비하는 8년간 남들이 보기에는 쉬는 것 같았겠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했다. 그래서 아직도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곧 차기작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영화를 하겠다는 의욕을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우선은 관객이 던진 숙제에 답을 내는 것이 먼저다. 영화로 관객에게 질문하는 감독은 이제 관객의 숙제에 성실하게 답을 내놓을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G

추억은 그대로, 동네 목욕탕의 변신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몇 년 전 어느 로맨스 영화에 목욕탕 콘셉트의 술집이 배경으로 등장한 적 있다. 영화에서는 스치듯 비쳤지만 이색적인 분위기가 꽤 인상적이었다. 어릴 적 너무나도 친숙했던 대중목욕탕을 마주한 반가움도 컸다. 목욕탕에 가기 귀찮다며 투정부리다가도, 목욕을 마치면 맛있는 초코우유를 사주겠다는 엄마의 달콤한 유혹에 따라나섰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목욕탕으로 향하던 횟수가 크게 줄었다. 집 주변 목욕탕도 다수 문을 닫았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찜질방이나 사우나의 등장으로 동네 목욕탕의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이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던 목욕탕 굴뚝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조금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외관은 지키되 또 다른 성격으로 우리 곁에 머무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으니 말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자리한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이 그런 존재다. 행화탕은 살구꽃을 뜻하는 한자어 '행화'와 '탕'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 과거에는 목욕탕이었다. 1950년대 말 지어진 뒤 60여 년 동안 목욕탕으로서 제 기능을 해오다 2011년 영업을 중단했다. 한때는 이 지역을 상징할 만큼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형 찜질방의 유행으로 찾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문을 닫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아현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남겨진 건물마저 시한부 처지다. 고물상이나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행화탕 전경 | ⓒ영상미디어





1 메뉴판과 쟁반을 수건과 목욕 바가지가 대신하고 있다.
2 행화탕은 좌식 형태를 고수함으로써 방문객이 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영상미디어

창고, 사무실 등의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아주 잠깐일 뿐, 오랫동안 유휴공간으로 방치됐다. 그러던 중 2016년 청년기획자들이 이곳에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예술로 목욕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바쁜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한 것.

'목욕탕'이라고 적힌 높은 굴뚝도, 목욕탕을 뜻하는 기호도 옛날 그 시절 모습 그대로다. 하지만 문을 열어젖히면 흡사 좌식 카페와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속담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 간결하게 표현하려니 딱 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만 보면 카페지만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목욕탕을 연상시킨다. 우선 테이블 대신 널따란 책상과 방석,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놓여 있는데 과거 목욕탕에서 담소를 나누던 평상이 겹쳐 보인다. 판매 메뉴는 종이 대신 수건에 적혀 있으며 주문한 음식은 쟁반 대신 목욕탕 바가지에 담겨 나온다. 기존 공간의 특징과 추억도 함께 기억되길 바라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서상혁 씨의 마음이 깃들었다.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기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곳에 오는 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했습니다. 그 기반이 예술이 됐으면 하고요. 대중목욕탕은 같은 온도의 탕에 몸을 담근 채 사람들과 만남이 즐거운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행화탕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방과 치유의 예술 약수가 샘솟는 공간이에요."

"행화탕을 매개로 서로를 기억했으면"

서상혁 씨는 일부러 좌식 형태를 고수한다. 방문객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서 벗어나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흔히 일상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무언가를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화탕에 들렀던 사람들이 그랬으면 한다고.

그래서일까. 매표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위치를 따라 탕이 자리했던 공간으로 움직이다 마주한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탕에 들어오기 전 당신이 서 있는 탈의실에서 신발을 벗고 바쁜 일상의 짐도, 내 것이 아닌 것도 오롯이 내려놓고… 마음의 때를 밀고 가기를.'

복합문화예술공간답게 행화탕의 모든 공간은 전시와 공연을 위한 장으로 활용된다. 탈의실과 욕탕은 당연하고 야외마당, 마당창고, 보일러실, 과거 목욕탕 주인이 살았던 집까지 각 공간의 특성을 살려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를테면 기름창고였던 곳의 천장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그 사이로 떨어지는 빛기둥이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시간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덕분에 이곳을 찾는 아티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라고. 탕과 좁은 문으로 연결된 어두침침한 보일러실은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낭만적 분위기로 가득하다. 또 목욕탕 내부 벽면을 장식했던 사각타일, 시간이 지나 낡아버린 지붕널은 무대의 색다른 배경이다.

행화탕은 아현동 재개발 예정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철거 일정이 정해지면 사라지게 된다. 굵고 강렬한 예술활동을 빠르게 지속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행화탕에서의 활동은 언젠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화탕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게









1 행화탕에서 열린 예술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 축제행성
2 과거 탕이 존재했던 공간 앞에 위치한 안내판 | C영상미디어
3 지난 세월의 흔적이 벽면과 천장을 통해 전해진다. | C영상미디어
4 중앙탕 옛 모습을 고수한 플래그십 스토어 배스하우스의 모습 | 조선뉴스프레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매일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서상혁 씨는 행화탕을 알리기 위해 그 흔한 온라인 홍보도 하지 않는다. 행화탕이 지향하는, 방문객에게 권하는 공간의 의미를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다. 온라인을 통해 엿보기보다 직접 이곳에 와서 걷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화가 살구꽃이에요. '고향의 봄' 가사 중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라고 있잖아요. 향토적인 정서가 물씬 느껴져요. 행화탕도 그랬으면 해요. 행화탕과 이곳의 예술활동을 매개로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살구를 사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청을 담그는 작업도 해보려고요."

남겨진 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

유유히 걷는 한가로움이 매력인 서울 종로구 계동길에도 동네 목욕탕이 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중앙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골목을 계동길이라고 하며, 그 길 한편에 '중앙탕'이 5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중앙탕은 더 이상 목욕탕이 아닌 아이웨어 브랜드(Gentle Monster, 젠틀몬스터)의 플래그십 스토어, 'BATHHOUSE'다.

소박한 목욕탕과 화려한 쇼룸의 조화가 어딘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곳만이 줄 수 있는 신선함이 달갑다. 젠틀몬스터는 남겨진 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을 연출했다. 목욕탕의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브랜드의 정서를 담아 '창조된 보존'의 개념을 재현하고자 했다. 옛 목욕탕 간판을 달고 있지만 건물 안에는 최신 유행의 안경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수많은 사람이 몸을 담갔을 탕의 구조는 그대로이며, 파란색 낡은 타일 위로 제품 진열대가 쭉 늘어서 있다. 물을 데우는 보일러도 예전 모습 그대로 인테리어에 활용해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층에는 물의 동력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설치 작품이 설치됐는데 이 또한 작은 탕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변환시키고 이것은 바로 위층에 설치된 162개 전구를 밝힌다. 목욕탕의 동력원인 물을 적용한 흥미로운 볼거리다. 3층으로 향하는 계단 중간에는 중앙탕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현재 모습과 과거 모습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재미는 덤이다.

이 밖에도 경북 경주시 좁은 골목을 지키던 목욕탕 '온정탕'은 술집으로 변했다. 철제문에 적힌 '여탕', '남탕' 문구는 과거 이곳이 어떤 장소였는지를 알려준다. 수십 년은 됐을 것 같은 누런 종이와 벽지 대신 붙여둔 수건, 지금은 테이블을 품고 있는 탕 등 지난 흔적을 찾으며 추억에 젖어본다. G

지금의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지금

김윤하 | 대중음악 평론가

'빌보드 1위'는 마치 신기루와도 같은 단어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기회 또는 우연을 통해 선택 받은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신비의 왕좌. 이는 당신이 영어권이 아닌 국가 출신이라면 더욱 가깝게 느껴질 감각이다. 특히 음악을 하고 있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피붙이처럼 들어왔지만 실제로 가 닿을 수는 없는, 멀고 먼 미지의 땅.

2018년 5월, 방탄소년단(BTS)의 이름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건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빌보드 싱글 차트 첫 진입 10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한 그룹이 거두어낸 성과 그 이상이었다. 대한민국에 대중음악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래, 셀 수 없이 많은 재능 있는 젊음이 염원해온 숫자가 실제로 기록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오랜 꿈의 실현. 아이돌 팬덤은 물론 음악 마니아, 심지어 대통령까지 축전을 보내는 것이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방탄소년단이 거둔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이슈나 하이프(Hype·대대적인 광고나 홍보)에 기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의미심장해진다. 이들이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발표한 '화양연화 pt.2'가 빌보드 앨범 차트 171위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발표하는 앨범마다 착실하게 순위를 높여왔다. 1위를 차지하기까지 실질적으로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고, 이는 이들이 짧지 않은 시간에 팬 층을 탄탄히 넓혀왔다는 증거다. 그렇게 구축된 전 세계 아미(ARMY, 방탄소년단의 팬덤명)가 이들의 트렌디한 음악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속에 담긴 메시지까지 언어와 상관없이 깊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청춘의 아픔, 사랑의 희로애락 등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음이라면 누구나 쉽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테마 앞에 인종도, 국적도, 언어도 무용해진 셈이다.


빅히트

이는 수년 전 싸이가 '강남스타일', '젠틀맨'으로 거둔 성과와 방탄소년단의 그것 사이에 명확한 차이점을 만든다. '강남스타일'이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와 말춤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해주었다면,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이들은 오로지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음악, 이미지, 이야기, 서사, 무대에 집중하고 열광한다.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한다면, 맞다. 한국의 아이돌팝, 즉 케이팝의 가장 큰 파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의 팬덤과 매우 흡사한 형태다.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익숙해진 특정 팬덤의 활약은 해외 음악시장에서는 1960년대 중반 밴드 비틀스로부터 촉발된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이나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자체만큼이나 흥미로운 존재로 여겨진다. 넘치는 에너지와 행동력으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아미가 방탄소년단과 샴쌍둥이처럼 자주 소환되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진다. 방탄소년단이 그룹 구성에서 팬덤 유형까지 기존 케이팝 그룹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전형성을 해외에 전파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다른 그룹은 안 되고 이들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질문에 내릴 수 있는 대답은 사실 허무하리만큼 쉽다. 사랑받는 대중문화의 대부분이 그렇듯 콘텐츠의 힘과 타이밍의 조화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양과 질 모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초반 물량 공세와 유튜브, 트위터 활용에 특화된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의 기막힌 궁합이 없었다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시에 흑인음악과 전자음악, 케이팝과 팝 사이의 절묘한 합의점을 찾아낸 이들의 음악과 그것을 극대화시킨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그 모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특유의 스토리텔링이 없었다면 빌보드 1위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도 지금을 예측하지 못했듯 누구도 다음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단 하나 확실한 건, 방탄소년단이 지금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지금의 방탄소년단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찻잔에 띄우는 희망 장애인 꽃차 소믈리에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참벗보호작업장, 녹음이 짙은 풀밭 위로 삼삼오오 모여 있다. 그들 중 꽃잎을 매만지던 사람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차 위로 둥둥 떠 있는 작고 노란 꽃을 보고만 있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꽃차예요. 먼저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은 뒤 입으로 맛을 보세요."

자신을 '꽃차 소믈리에'라고 소개한 손현수 씨가 꽃차를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이라며 권했다. 손현수 씨는 매주 평일 참벗보호작업장을 오가며 꽃차 만들기를 배운다. 그게 뭐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싶지만 그에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손 씨는 3급 발달장애인 꽃차 소믈리에다. 대개 와인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사람을 두고 소믈리에라고 하듯, 꽃차 소믈리에는 꽃차의 색과 향, 맛을 분별하는 전문가다. 꽃차의 원료와 관련한 정보 습득은 기본이고 재배·보관법도 익혀야 한다. 암기나 습득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손 씨는 비장애인과 겨루는 꽃차대전에서 두 번을 수상한 실력파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손 씨는 6년째 참벗보호작업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언젠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장경언 선임 직업훈련교사는 "개인마다 장애 수준과 특성

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자체 생산품을 판매한 금액을 월급 개념으로 지급하는 등 생산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가공 작업부터 체험학습장까지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꽃차 소믈리에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생활리듬에 보다 맞출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한다.

장경언 교사에 따르면 장애인 꽃차 소믈리에가 채용된 사례는 없다. 장애인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꽃차 소믈리에 시장 규모 자체가 작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그는 '건강한 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꽃차 소믈리에 시장은 성장할 것이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애인이 전문적으로 삼을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장애인 바리스타가 그나마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지적장애인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바리스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게 꽃차 소믈리에였어요. 씨앗을 뿌리고 거둔 꽃잎으로 차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고 판단했거든요. 또 꽃을 하루 늦게 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조금 느려도 돼요."

꽃차대전 수상 경력, '무지개 꽃차'로 희망을

꽃차 소믈리에 분야에도 자격증이 있다. 가장 아래 단계인 2급부터 1급, 준특급, 특급까지로 구분된다. 2급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지만 1급부터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참벗보호작업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2급을 따는데 그 또한 노트 서너 권을 빽빽하게 쓰고 읽어야 해요. 하루에 한 장 분량의 숙제를 내줘도 열 번 이상의 필기와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는 비장애인에게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2014년부터 이곳에서 양성한 장애인 꽃차 소믈리에는 20명. 한국꽃차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꽃차대전'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선영 씨는 2016년 열린 대회에서 단체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3급 발달장애인인 박선영 씨에게 수상은 잊지 못할 기억이다. 당시 기분을 묻자 "정말 좋았어요"라고만 간단하게 답했지만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자세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는 않아도 꽃차를 좋아하는 그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듯했다. 대신 장경언 교사가 대회 당일 이야기를 전했다.

"저희가 넉넉하게 공부를 시켜준 것도 아니고 고된 과정을 반복했으니 힘든 점도 있었을 겁니다. 대회가 오전에는 꽃차 세팅을, 오후에는 세팅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날 세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이 긴장해서 밥을 잘 못 넘기더라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거였죠."



1 손현수(왼쪽), 박선영 씨가 말린 꽃잎을 든 채 웃어 보이고 있다.
2 꽃잎 위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꽃차가 된다.
| C영상미디어

박 씨를 포함한 이곳 꽃차 소믈리에들에게 꽃차 만들기는 일상이자 취미 그리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하나가 됐다. 참벗보호작업장이 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점이다.

"2016년 꽃차대전에선 은상을 수상한 친구들의 꽃차 테마가 '무지개 꽃차'였어요. 일곱 빛깔로 희망을 그렸거든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꽃차 소믈리에는 그런 의미예요. 희망이요. 한 전문가로서 사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공자님 말씀’과 소확행

공자(기원전 551~79)는 중국의 철학자다. 중국 한나라의 역사가 사마천은 “10여 세대를 지나왔어도 여전히 학자들이 공자를 추앙한다. 천자, 왕후부터 나라 안의 모든 학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공자는 참으로 최고의 성인이다”라고 했다.

사마천이 그 글을 쓴 것은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지 400여 년이 가까웠을 때였다. 그때에도 공자의 말이 정치와 학문의 판단 기준이 됐다. 어찌 그때뿐이겠는가. 20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무려 25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공자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정치와 학문에서 절대적 권위를 누렸다.

공자는 일흔 살의 숙향흘과 열다섯 살의 안 씨가 들에서 관계를 맺어 태어났다고 한다. ‘들에서 관계 맺었다’는 것을 한자로 야합(野合)이라 한다. 야합이란 오늘날에도 비정상적인 관계 맺음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공자의 부모 또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모자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열다섯 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예민한 청소년기에 천애고아가 된 공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공자는 그때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 없이 홀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했다. 스승을 모실 만한 처지가 아니었기에 더욱 분발해야 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듣고 배우며 깊은 사색을 통해 자신의 학문을 세워나갔다. 마침내 서른 살이 됐을 때, 자신의 학문을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자는 교육자였다. 공자는 중국에서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 당시 교육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었다. 제나라 재상 관중은 백성의 직업을 사농공상의 네 가지로 나누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인 사와 장사를 하는 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이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생산적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기가 어려웠다.

공자는 서른 살 때부터 제자들을 받아들였고, 제자들이 내는 수업료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높은 액수의 수업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포(脯) 한 속(束) 이상을 가지고 와서 가르침을 청하면 가르쳐주었다”라고 했다. ‘포’는 얇게 썰어 말린 고기를 말하고, ‘한 속’이란 ‘열 개’를 말한다. ‘포 한 속’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지만 저렴했던 것 같다. 아마도 공자는 ‘대중교육’을 최초로 실천한 스승일 것 이다.

공자의 제자는 무려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중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제자가 70여 명이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제후를 보좌하는 직책을 맡거나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다. 제후를 직접 가르친 제자도 있었고, 유력자들과 사귀며 가르친 제자도 있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제자들에 의해 공자의 사상은 중국에서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고, 이후 조선, 일본, 베트남으로 전파되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사상이 되었다. 공자의 사상을 유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는 지식인을 말한다. 공자를 최초이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존경해 그의 사상을 유교 또는 유학이라 했던 것이다.

〈논어〉는 공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이다. 중국 각지로 퍼진 제자들은 저마다 공자와 나눈 대화를 기록해 활용했을 것이다. 후대에 그것들을 모아 펴낸 책이 〈논어〉다. ‘논어(論語)’는 ‘말’을 의미한다. 그런데 〈논어〉에 기록된 공자의 말은 매우 단편적이다.

흔히 당연한 얘기를 ‘공자님 말씀’이라고 비유하듯이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공자를 그토록 위대한 사상가라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공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제껏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돼왔다.

> *한편에서는 지금의 소확행이 소비와 연관될 수 있음을 들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 정신적 만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혼자만의 행복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신을 살찌우고 주변을 배려하며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는 것. 아마도 그 즐거움이 행복의 시작일 것이다.*

아마도 〈논어〉를 연구한 책자를 모아놓으면 〈논어〉의 수천 배 분량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논어〉는 누구나 가볍게 읽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다. 〈논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삶의 지혜 중에서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대단히 유명하다.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수시로 익힌다면 기쁘지 않겠느냐!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느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군자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자는 세 가지 즐거움을 말했다. 공부와 친구 그리고 과시하지 않음이다. 여기에서 공부는 물론 시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정신을 살찌우는 데 도움이 되는 교양을 일컬어 공부라 한 것이다.

친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공자가 말한 친구는 사전적 의미인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자는 다른 곳에서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안에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가 말한 친구란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과시하지 않음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기 과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연히 마음이 상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또한 서먹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공자의 말이 새삼 마음에 와 닿는다.

공자가 말한 세 가지 즐거움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이란 말을 생각해보게 된다. 이 말은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6년에 발표한 한 수필집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국내에도 하루키의 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확행이란 말은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야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경제적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로 인한 젊은 세대의 미래 불안 등이 소확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이라는 것이다. '채워지기 어려운 미래의 욕망보다 당장 이룰 수 있는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한 소확행'이 관심을 끌게 됐다는 얘기다.

소확행이란 의미상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일상의 행복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계속 추구해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행복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말의 유행을 좇기보다 오늘날 일상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는 지금의 소확행이 소비와 연관될 수 있음을 들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의 말처럼, 소비가 과시적 욕망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복이 소비와 연관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과 같은 물질적 풍요시대에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불행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 정신적 만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혼자만의 행복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신을 살찌우고 주변을 배려하며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는 것. 아마도 그 즐거움이 행복의 시작일 것이다. G



홍승기 | 〈한국 철학 콘서트〉, 〈철학자의 조언〉 저자



프랑수아 부셰, '모닝커피', 1739, 캔버스에 유채, 82x66cm, 루브르박물관, 파리

삶의 위로와 여유, 커피

"내 커피 잔 속에 위로가 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빌리 조엘의 말이다. 커피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 하나다. 커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이 많다. 이토록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커피지만, 그러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에티오피아의 양치기 소년이 염소들이 커피 열매를 따먹고 흥분하는 것을 보고 커피의 효능을 발견했다는 설, 13세기 아라비아의 사제 오마르가 배를 곯고 산을 헤매다가 새들이 쪼아 먹는 것을 보고 먹기 시작했다는 설, 원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다른 곡류와 함께 갈아먹었는데 11세기 초 그 효능이 분명히 인식되면서 기호식품으로 음용되기 시작했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이 가능한, 커피 음용에 대한 증거는 15세기부터 나온다.

커피의 어원이 되는 카파(Caffa, '힘'이라는 뜻)가 에티오피아어인 데서 알 수 있듯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섭취되기 시작해 아라비아 반도로 퍼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아라비아에서 이집트, 시리아 등 다른 중동국가와 터키를 거쳐 인도에까지 전해졌으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거쳐 나머지 지역으로 퍼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를 대접받은 게 그 시초라고 하나, 이미 그 수년 전부터 커피가 대중에게 팔리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커피를 그린 초기의 서양화로는 프랑스 화가 프랑수아 부셰(1703~1770)의 '모닝커피'가 유명하다. 이 그림은 매우 행복하고

단란한 18세기의 프랑스 가정을 그린 그림이다. 모델이 된 사람들은 화가의 가족이다. 화가의 아내가 방금 따른 따뜻한 커피를 맛보며 우아한 시선으로 오른쪽 귀퉁이의 아이를 돌아본다. 화가의 여동생, 곧 시누이는 이 집의 막내를 무릎에 앉히고 음식을 먹이고 있다. 그녀 앞에도 커피 잔이 놓여 있는 것은 물론이다. 앞치마까지 두른 채 커피포트를 쥐고 시중을 드는 사람은 커피 배달원(garçon limonadier)이다.

당시 커피는 매우 럭셔리한 수입품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온 가족이 이렇듯 카페에서 커피를 배달시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복한 형편임을 의미한다. 카페(café)는 프랑스어로 커피를 뜻하는데(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도 같은 스펠을 사용한다), 그 이름이 진화해 '커피하우스'의 뜻까지 포함하게 됐다. 19세기에 이르면 프랑스뿐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커피하우스를 뜻하는 말로 카페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쓰인다.

그림 속 화려한 가구와 중국에서 수입해온 멋진 장식품들이 이 집의 넉넉함을 말해주는데, 부셰는 화가일뿐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왕실을 비롯해 극장, 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의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을 맡아 진행했다. 그의 안목과 풍족한 수입이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낳은 것이다.

이채로운 것은, 오른쪽 아이가 머리에 보호 밴드를 하고 손에 목마와 인형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무렵부터 유럽에서는 아이 양육에 대한 관념이 급속히 진보했다. 그 전까지는 아이를 주체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도 깊지 못했으나,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정서와 필요를 고려해 걸맞은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고 식탁 주변에서 어른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커피를 즐기며 아이의 성장도 지켜보는, 참으로 근대적 여유가 물씬 풍기는 그림이다.

동시대를 살았지만, 부셰처럼 화려한 부유층의 삶에 매료되지 않고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에 눈길을 주었던 화가가 있으니 그가 장 밥티스트 시메몽 샤르댕(1699~1779)이다. 그는 매우 소박한 커피포트 정물화를 남겼다. '물컵과 커피포트'가 그 그림이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물이 4분의 3쯤 채워진 유리잔과 갈색의 커피포트다. 둘 사이에 놓인 것은 마늘이다. 물컵은 그렇다 쳐도 왜 마늘이 커피포트와 함께 있는 것일까? 사실 여기 놓인 소재들은 같이 먹으려고 배치한 차림이 아니다. 화가의 의도는 철저히 조형적인 측면에 있다. 소재들의 형태와 크기, 색채, 질감 등이 서로 잘 조응하고, 소박하고 담박한 서민적 정서를 표출하는 데 적절해 이렇게 모아 표현한 것이다.


장 밥티스트 시메몽 샤르댕, '물컵과 커피포트', 1761년경, 캔버스에 유채, 32.38x41.28cm, 카네기 미술관, 피츠버그

커피포트가 부셰의 그림에서 보는 금속성이 아니라 흙을 구워 만든 테라코타라는 점이 특별히 눈길을 끈다. 이 커피포트로 따라 마시는 커피는 그만큼 구수하고 인간적인 향취로 충만할 것이다. 물론 아직은 커피가 사치품처럼 인식되던 시대이니 샤르댕의 정물화도 가난한 서민이 보기에는 무척 부러운 여유의 표정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셰의 그림보다 20년쯤 뒤에 제작된 이 그림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서민에게도 익숙해져가는 커피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시대를 지나 19세기에 접어들면 커피는 완전히 유럽 서민의 일상에 스며든다.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는 농민들이 감자를 먹으면서 커피도 함께 즐기는데, 이제 커피는 더 이상 부자들의 사치품이 아니라 누구나 즐기는 일상의 기호품이 된 것이다. 커피를 그린 그림들만 놓고 보아도 이처럼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눈에 들어온다. G



미술평론가 이주헌은 미술 기자를 거쳐 학고재 관장을 지냈다.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내 마음속의 그림〉, 〈서양화 자신있게 보기〉, 〈이주헌의 아트카페〉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나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따뜻한 보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따뜻한 보훈 구현 및 범국민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또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민간 협력 및 지역축제 연계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6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최고의 보훈을 구현하고, 모범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대외 유공인사 30명에게 정부 포상을, 408명에게 각 부 장관 및 보훈처장 표창을 한다.

6월 26일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유엔 참전용사들을 위한 위로연을 펼친다. 보훈병원 입원환자 및 보훈요양원 입소자를 위문하는 한편, 무공훈장 수훈자, 저소득 유공자 등 보훈가족 1만 6000여 명을 위로·격려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도 보훈가족 1만여 가구에 대해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하고, 무료 건강검진 등 사회공헌사업도 실시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하루 앞둔 5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호국보훈기와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 연합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들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방한 초청하거나 후손 초청 행사를 두 차례 실시하며, 22개국 1만 명의 고령 참전용사를 위한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제62회 현충일에 '6610 묵념 캠페인'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은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하고 전국 17개 시 · 도 및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지방 추념식도 개최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국가유공자를 온 국민이 함께 추모할 예정이다.

현충일 당일 오전 10시 정각에는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 확산을 위해 '6610 묵념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 국민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추모 묵념을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국무총리 명의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1분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다. 이 시간에는 전국 주요 도로의 구간별 교통 운행이 일시 정지된다. 이와 함께 SNS 인증사진, 해시태그(#) 이벤트, 온라인게임 이벤트 등도 실시한다.

또한 제68주년 6·25전쟁 상기 행사를 6월 2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해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령의 6·25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216개 지역에서 지방 행사를 거행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젊은 세대의 호국보훈의 달 참여 확산을 위해 '다음카카오와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을 실시하고, 블로그나 SNS를 통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감사 댓글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참전·전후세대가 함께하는 보훈문화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서울·경기에서는 거북이 마라톤(17일), 참전유공자 프리허그 데이(1일), 호국보훈의 달 특별전(1~10일), 훈카페(국가유공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보훈테마식당, 6월 중), 부산·경남에서는 해운대 모래축제(독립유공자 형상 대형 모래조각 전시, 5월 말), 피란수도 부산야행(23~24일), 나라사랑 오픈 버스 6.2.5!(15일) 행사를 갖는다.

대전·충청에서는 보훈문화페스티벌(9일), '보훈으로 하나 되는 이은결의 Stage of Illusion'(국가유공자 초청 위문 마술공연, 12일), 대구·영남에서는 'Show me the 보훈'(보훈 콘텐츠 전시회, 7~9일), 달구벌 보훈문화제(16일), 국방부 유해 발굴 유품 및 사진전시회(5~6일), 광주·전남·북에서는 국가유공자 리마인드 웨딩(1일) 행사가 열렸고, 순천만 현충음악회(6월 중), 태극기를 활용한 '나라사랑 플래시몹'(6월 중) 등 전국 각지에서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통합하는 축제를 진행한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역	행사명	일시
부산지방보훈청	나라사랑 오픈버스 6.2.5!	6월 중
	부산갈매기 나라사랑 시민걷기대회	6.17
	피란수도 부산야행 호국보훈스토리	6.23~6.24
	기억하라, 호국영웅! 응답하라, 6·25!	6월 중
	마산 창동예술촌 '나라사랑 골목투어'	6월 중
	훈훈한 보훈! 호국보훈응원 챌린지	6월 중
	독립·호국·민주 나라사랑 돗자리 영화제	5~8월 중
대전지방보훈청	보훈문화페스티벌	6.9
	보훈으로 하나되는 이은결의 stage of illusion	6.12
	우리고장 독립운동가 감사 퍼포먼스	6.18
	윤봉길의사 불꽃음악회	6.21
광주지방보훈청	광주 레드페스타	5.26
	국가유공자 리마인드 웨딩	6.1
	순천만 '현충음악회'	6월 중
	나라사랑 플래시몹	6월 중
	미션 현충9경을 찾아라	6.21
	보훈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버스공감	6.15

지역	행사명	일시
서울지방보훈청	거북이마라톤	6.17
	FREE HUG DAY	6.1
	보훈 팟캐스트	6~8월
	호국보훈의 달 특별초대전	6.1~6.10
	보훈한마당	6.16
	리멤버 토크콘서트	6월 중
	콘서트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6월 중
	함께 걷는 민주주의의 길	6.11
	훈카페	6월 중
	미아리 능선 걷기 대회	6.6
	뮤지컬 '심우'	6.9
	제3회 인천 호국보훈영화제	6월 중
	호국보훈커피거리조성	6월 중
	고양시 호국보훈문화제	6.9~6.11
대구지방보훈청	호국감사음악회	6.15
	보훈의 달 특별전 'Show me the 보훈'	6.7~6.9
	달구벌 보훈문화제	6.16
	청소년 나라사랑 樂콘서트	6.9
	보훈온데이 페스티벌	6.16
	호국감사음악회	6.28
	국방부 유해발굴유품 및 사진전시회	6.5~6.6

자료 | 국가보훈처

여성 독립유공자와 의병 적극 발굴 포상

한편 국가보훈처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보훈정책을 살펴보면,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신설하고 보훈요양원 건립 등을 통해 보훈복지를 강화한다. 또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 건립, 만세운동 재현 등 기념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월 19일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먼저 독거세대 등을 먼저 발굴해 지원하는 '보훈나눔+' 사업을 도입하고 복지기관과 협업해 나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보훈서비스'도 확대해 보훈복지를 강화한다.

또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대상으로 526억 원 규모의 생활지원금을 신설하고,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과 재활센터 등 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훈처는 군 의무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순직·자살자의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보훈심사를 개선하고,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여성은 전체 포상자의 2%, 의병은 참여자 중 포상자가 0.8%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여성과 의병을 적극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사연구소(독립기념관)를 발굴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제대 군인을 위해 중·장기 복무자 64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무복무자 중 고졸 이하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사이버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0만 명이 참여하는 '독립의 횃불' 3·1운동 재현 행사, '위대한 유산' 헌정음반 제작 등을 계획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의회청사 부지에는 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6236㎡ 규모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도 건립된다.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 기념관을 서대문독립공원과 연계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받은 **이애희** 씨

“국가 지원 고마울 따름… 이동녕 할아버지 업적 재평가됐으면”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3동 이애희(82) 씨가 사는 빌라를 찾았을 때, 그는 막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다. 이애희 씨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과 주석을 지낸 석오(石吾) 이동녕(李東寧·1869~1940) 선생의 손녀다. 작은 원룸에 들어서니 이 씨는 “요즘 거동도 불편해지고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치매가 오는 것 같아 겁난다”고 했다.

이 씨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다녀간 이야기를 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는 1월 15일, 피우진 처장이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자녀인 이애희 씨를 직접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했던 것이다.

“피 장관이 ‘선조께서 좋은 일을 하고 가셨는데, 긍지를 갖고 기쁘게 사시라’고 하더라고요. 늘그막에 무슨 낙이 있겠냐고 했더니, 생활지원금을 갑자기 받은 것처럼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면서 그동안 신세진 친구들에게 한 턱 쏘라고 금일봉까지 주고 가셨어요.”

국가보훈처는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1만 3640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2018년 1월 15일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킨 것이다.

생활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우선 지급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2018년 예산에 526억 원을 반영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000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만 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했고,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1만 3640명이 신청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신청자 중 생활수준 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

억 7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1월 미지급자 1만 453명은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이 씨도 지난해 연말 주민센터로부터 "이동녕 선생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동녕 선생은 25세 되던 1894년 결혼해 이듬해 첫아들 이의직을 낳았다. 이의직은 석오가 세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15년 사망했다. 이에 앞서 부인과 둘째 아들 이의식(1900~?)과 셋째 이의배 등은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애희 씨는 "큰아버지 이의식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1회로 졸업하고 의학박사가 돼 서울에서 '이의식 내과병원'을 개원했다"며 "나는 셋째 아들 이의배의 막내딸(2남 1녀)"이라고 했다.

이의식은 해방 후 미군정 민주의원에 뽑혔고, 반민특위 감찰관을 지냈으나 6·25 때 납북됐다. 그는 이철희(1925~1976)와 이석희(1932~2014) 두 아들을 뒀다. 이철희 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을 졸업하고 해방 후 귀국해 경무대 대통령 비서관, 문교부 편수국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 서울교대 학장 등을 지냈다. 이석희 씨는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우개발 사장, 대우그룹 부회장, 대우증권 회장을 지냈다.




1 석오 이동녕 선생은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산파역을 수행했다. 왼쪽부터 김구, 박찬익, 이동녕, 엄항섭 선생 | 독립기념관 **2**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월 1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동녕 애국지사의 손자녀 이애희 씨 가정을 방문해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문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할아버지 이동녕 재평가돼야"

이애희 씨는 "독립유공자 연금은 장손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했다.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생계급여에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합치면 이전의 생활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큰집에 폐를 끼치지 않고 가정을 꾸려나가려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여웠다"며 "풍문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으나 등록금 걱정에 꿈을 접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던 세월이 서글프기만 하다"고 했다.

이동녕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 주석 등을 역임하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이동녕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산파역을 수행했다. 그리고 통합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에 이어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무대리·주석 등을 역임하면서 20여 년 동안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김구도 〈백범일지〉에 "금일의 오인(吾人)을 있게 한 이면에는 이동녕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다"고 했듯이 일곱 살 아래인 백범은 선생을 부형(父兄)처럼 떠받들었다. 1939년 임정의 네 번째 주석(1939~1940)이 되어 김구와 합심해 전시 내각을 구성, 시안(西安)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했다. 선생은 일흔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김구와 함께 광복군 창설을 위해 노심초사하다가 급성폐렴으로 광복을 목전에 두고 이국 땅 기강에서 1940년 3월 7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1948년 사회장으로 봉환식을 거행했고, 효창원에 안장했다.

이애희 씨는 "'이동녕이 군자금 가지러 왔다'고 하면, 우리 집 주위에 일본 순사들이 쫙 깔렸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난다"고 했다. 이 씨는 "일본을 상대로 조국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살아가신 할아버지의 삶의 자세는 범인으로서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할아버지의 삶과 공적이 재평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되찾은 공사관 113년 만에 태극기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공사관 외부

문화재청

1889년 조선의 첫 외교공관으로 문을 연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복원공사를 마치고 지난 5월 22일 개설 130주년 기념 개관식을 가졌다. 1910년 경술국치로 일제에 빼앗긴 지 108년 만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개관식이 열린 5월 22일은 136년 전 제물포 화도진(현재 인천)에서 조선과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던 날이면서, 고종 황제가 보낸 초대 공사 박정양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130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개관식은 공사관이 있는 로건서클 역사지구 내 공원에서 열렸다.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후 113년 만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뜻깊은 행사도 마련됐다. 게양자로 독립유공자이자 초대 공관원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의 증손자가 나섰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청사는 1877년 미국 남북전쟁 참전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외교관인 세스 펠프스의 저택으로 지어졌다. 빅토리아양식으로 지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당시로서는 거금인 2만 5000달러를 주고 매입한 대한제국의 첫 번째 공사관이다. 공식 명칭은 '대조선주차 미국화성돈 공사관(大朝鮮駐箚 美國華盛頓 公使館)'인데 여기서 주차는 주재를, 화성돈은 워싱턴을 말한다.

공사관은 조선이 동북아시아의 구질서를 극복하고 더 큰 외교적 지평을 열기 위해 애썼던 고종의 자강·자주외교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다. 또한 현존하는 대한제국 외교공관을 통틀어 유일하게 원형을 간직한 단독건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도 크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사 측면에서 봐도 의미 있는 건물이다. 미국 워싱턴 안에 있던 19세기 외교공관 30여 개 가운데 내외부의 원형이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이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최초 공사관, 고종의 자주외교 의지 담겨

공사관은 구한말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수교한 이래 1889년 주미공관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자주외교를 지향하며 1893년 시카고박람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등 활발하게 외교활동을 벌였지만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공사관의 외교 기능도 정지됐다. 5년 뒤인 1910년에는 한일강제병합과 함께 청사 소유권도 일제에 넘어갔다. 일제는 당시 단돈 5달러에 청사를 매입해 미국인에게 10달러에 되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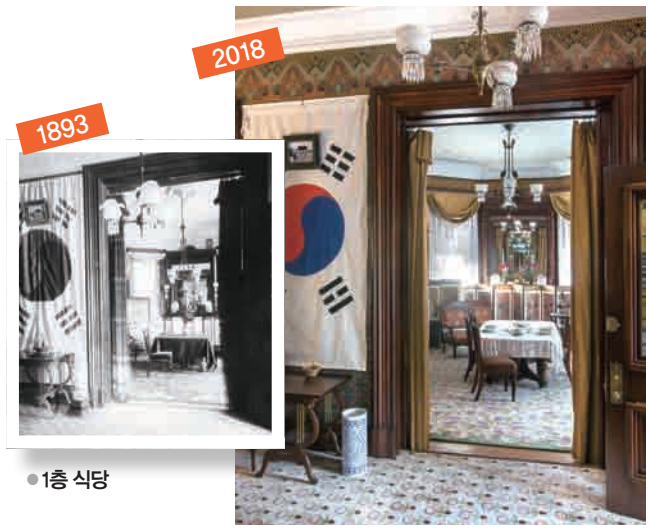
이후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아프리카계 군인의 휴양시설과 화물운수노조 사무실,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2012년 10월 문화재청이 당시 건물 소유자인 젠킨스 부부에게서 350만 달러(한화 약 39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102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복원작업은 국내외에서 발굴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각종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참고해 총 6년에 걸쳐 이뤄졌다. 1층에는 접견실과 식당 등이 과거 모습을 토대로 재현됐고 2층에 있는 공사 집무실, 부부 침실, 공관원 집무실, 서재 등도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다. 공관원 숙소였던 3층은 전시실로, 지하 1층은 자료 보관실로 사용된다. 건물 주차장으로 이용됐던 외부 공간은 꽃담, 불로문, 박석 등을 설치해 현대식 한국 정원으로 꾸며 한국적인 멋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2012년 대한제국공사관을 매입할 때부터 참여해 2015년 8월부터 2년간 워싱턴에 머물며 공사를 총감독한 김종헌 배재대 교수는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힘을 합쳐 완성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 미국 장인이 대거 참여했고 건물 외부에 있는 한국식 정원을 만드는 작업에는 한국의 명장들이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100여 년 만에 되찾은 공사관 건물이 수백 년간 버티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지붕부터 바닥까지 튼튼하게 보강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복원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함께 전했다. 1층 벽체를 철거하다가 벽돌 사이에 목침을 박은 흔적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수행인이 사용하던 계단이었다. 대한제국 시절에도 이 계단을 사용했을 것이라 판단해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공사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안내 해설사가 배치돼 있고, 인터넷 사전예약(www.oldkoreanligation.org)과 현장 접수 방식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앞으로 임금이 있는 궁을 향해 예를 올리는 망궐례 재현행사, 로건 서클 역사지구 관람, 외교사 탐방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G



●1층 식당
문화재청



●1층 객당
문화재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역사

1889년 개관
1891년 11월 28일 조선왕조 매입(매입가:2만 5000달러)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외교권 박탈로 일본정부에 관리권 이양)
1910년 6월 29일 일본정부 매입(매입가 5달러)
1977년 9월 2일 전 소유주 젠킨스 부부 매입
2003년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현지 교민회 매입 시도
2012년 10월 문화재청 최종 매매계약서 서명(매입가:350만 달러, 한화 약 35억 5000만 원)
2013년 12월 건물 복원·리모델링 설계 시작
2018년 5월 22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정식 개관

자료 | 문화재청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 사상 첫 5조 원 ‘따뜻한 보훈’”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승격시켰습니다. 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따뜻한 보훈’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피우진(6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안팎의 평가가 비교적 좋게 나온 것은 정책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보훈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격려 때문”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피우진 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국가보훈처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친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사상 처음 5조 원이 넘는 보훈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2%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경청하고 보살펴드리는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한 보훈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삶을 사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복지서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올해 초 처음 신설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모든 분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는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업으로 꼽고 싶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보훈정책인 ‘따뜻한 보훈’에 대해 설명한다면?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고 이러한 예우 분위기가 곳곳에 스며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보훈은 단순히 보상금이나 보상정책으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복지, 예우, 선양 등 국가보훈처의 조직도 ‘따뜻한 보훈’을

위해 개편했습니다. 국가보훈정책이 바라보고 섬겨야 할 분들은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보훈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들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나라사랑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3만 명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약 2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올해 초부터는 생계 곤란이나 질병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연체이자가 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소액·장기 연체채무를 채무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채무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부터 그간 연 6~9%에 달하던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율을 연 5~7%로 인하했고, 연체채무 변제도 기존의 '연체이자→원금'에서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해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체계의 종합 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내놓았는데, 주요 골자를 설명한다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지난 정부 평균(3.7%)보다 높은 수준(5%)으로 인상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사회인식을 불식하고, 애국이 보상받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인지….

"유해 매장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조사와 뤼순감옥 일대에 대한 현지 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한중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유해 발굴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 추이를 봐가며 매장 추정지로 예상하고 있는 뤼순감옥 묘지 일대에 대한 조사를 중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지정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독립유공자 선정 절차는 전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포상 신청은 유족은 물론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또는 발굴을 통해 심사대상자가 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두 단계의 심사와 검증을 거쳐 서훈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적인 심의와 철저한 검증은 독립유공자의 영예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지정 절차가 폐쇄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포상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감기록이 아니더라도 독립운동이 입증되는 자료라면 포상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찾아드리고 있으므로 유족이 자료를 찾아야 하는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용사를 초청해 DMZ(비무장지대) 탐방, 유엔기념공원 참배 등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21개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 600여 분을 국내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참전용사의 평균연령이 87세가량으로 장거리 항공이동 등을 감안했을 때 희망하시는 참전용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한 분이라도 더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인 2020년까지 연간 초청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분들께 6·25전쟁 후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유엔 참전용사의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10개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10개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소관하고, 국립대전현충원 등 9곳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민주묘지관리소 3곳(4·19, 3·15, 5·18), 국립호국원 4곳(영천, 임실, 이천, 산청),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등이죠. 국립묘지 관리권 이원화로 인해 양 기관 간 민원이첩이 빈번하고 안장서비스 제도에 일부 차이가 있어, 유가족 및 참배객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전체 관점에서 볼 때 국립묘지의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기관 간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직 일원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경심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해수호의 날인 지난 3월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왼쪽 두 번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 연합

"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등이 대표적인 제복공무원들이죠.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해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매번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만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존경과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기반 마련과 더불어 복지 측면에서 응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1사(社) 1제대군인 채용'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매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군의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기 전역을 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지출이 가장 많은 40대 전후에 전역해 주거 및 자녀 양육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2015년부터 우수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을 선정해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목표로 기업 방문 설명, 제대군인 채용 업무협약(MOU),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의 기업 협력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4000여 기업에 5300여 명을 신규로 채용시켰고, 올해는 4000개 기업을 선정,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해 1명 이상의 제대군인을 채용해주기를 부탁드리는 등 전국의 9개 제대군인센터를 통해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쳤을 때, 어떤 국가보훈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저는 임명 당시에도 기존의 보훈처장에 대한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파격이 '인사의 파격'이 아니라 '정책의 파격'을 이끌어낸 보훈처장으로 기억되고 싶고, 240만 보훈가족들에게 따뜻한 처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피우진 처장은 인터뷰 말미에 "공법 보훈단체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폐지하면서 국가보훈의 정상화를 추진했던 것 또한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서였다"며 "관행을 깨고 혁신하는 보훈기념사업을 추진한 것도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꽃피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리고자 찾아낸 결과"라고 했다. G

청년취업자 돕는 '3년의 기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인기몰이

"청년 목돈 마련 큰 매력" "기업주에도 좋은 제도"

강보라 | 위클리 공감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청년이 12만 5000원씩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 1300만 원이 더해져 만기 후 1600만 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 해당된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에 한해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에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 원이 지원되며, 이 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구인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올해 1월부터 청년 신규 취업자의 지원 조건과 기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면서 예정된 5만 명분이 조기 마감된 상태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추경 이전부터 시행 중이었



통신계측기와 필터 부품 생산라인에 선 조학래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직원들 | C영상미디어

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 5월 21일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704억 원이 증액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이번에는 기존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분과 함께 3년형이 신설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로 마련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기업이 2400만 원을 지원해 청년은 만기 후 3000만 원을 돌려받도록 확대·운영된다. 3년형에는 2만 명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참여자 모집이 종료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4만 명의 사업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보는 청년은 1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지원자들이 2년형과 3년형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두 사업의 시행 시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15일 일자리 대책에서 나온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들이 고용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3~4년간의 취업시장 집중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 위하는 통신장비 제조기업 (주)이너트론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주)이너트론은 통신장비 부품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주로 디지털 방송장비에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 필터를 제조하는데, 이는 방송기기들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른 장비 주파수와 섞이지 않도록 걸러주는 기능을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내에 설치하는 다중대역결합기 또한 이곳 제품이다. 후지쯔, 도시바, 히타치, 하니웰 등 일본과 미국 장비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전체 매출의 60~70%를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수출 강소기업이다. 2002년 창립 후 현재까지 자체 특허기술이 총 116건으로 매월 1.5개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열정과 도전이 넘치는 청춘 기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젊은 기업답게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106명의 직원 중 현재 14명의 직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 경영지원부 김지은(29) 씨는 "입사 이후에 적용된 경우라 회사 적응에 문제도 없었고, 정부 주관이라 적어도 손해를 보진 않겠구나 싶어서 안심했어요"라고 말했다. 해외영업부 정부섭(30) 씨 역시 "청년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밝혔다. "2~3년 정도의 단기 운영도 필요하지만, 결혼으로 인한 주택 마련으로 목돈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5~10년 정도의 중·장기 운영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도 내놨다. 해외영업부 정아영(30) 씨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율이죠. 회사와 잘 맞을 경우에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조학래(47) (주)이너트론 대표이사도 기업 입장에서도 득이 더 많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2년간 한 명당 4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인센티브로라도 줘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강소기업은 사람이 곧 재산입니다. 이직률이 줄고 근속 근무기간이 높을수록 일의 숙련도가 올라가고, 신규 채용으로 인한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재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다 같은 직원인데, 입사 일자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적용 기준이 좀 더 유연해졌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간 이직률은 2010년 4.6%에서 지난해 5.0%로 상승했다. 100명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연간 이직률이 5%라면 매달 평균 다섯 명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이다. 한 해로 치면 직원의 60%가 물갈이되는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지만, 최근 취업 동향에서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비전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 인력 채용 및 유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근본 방안이 되



ⓒ청년미디어

는 것이다.

"워라밸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비전이 맞고 운영 철학이 마음에 든다면 대기업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정부섭)

워라밸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한글독음 첫 자를 딴 신조어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이다. (주)이너트론은 '워라밸'이 어울리는 회사다. 주요 경영철학에는 '직원 행복'이 있고,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은 전 직원이 5시 30분 정시 퇴근을 한다. 술 마시는 회식 대신 '문화 회식'으로 한 달에 한 번 팀별로 영화를 보거나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너트론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기업이기도 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물론 잔업과 야근이 없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중소기업이 바뀌어야 청년들의 삶이 달라진다

2017년 9월 입주한 신사옥도 눈길을 끈다. 크고 작은 큐브 형태의 세련된 색상과 외관을 자랑하는 사옥은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2017년)으로 선정됐을 정도다. 실제로 이너트론의 제조라인은 밝고 깨끗하다. 통유리로 환한 빛이 들어오고, 밖으로 공원과 바다가 보이는 쾌적한 공간이다.

"벽에 불량률 0% 써놓고 열심히 하라고 닦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너트론도 이전에는 남동공단의 임대공장에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면접도 못 보고 돌려보내는 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죠."(조학래 대표)

조 대표는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화한 것처럼 인식과 환경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너트론은 매출액의 10%가 넘는 높은 R&D 투자는 물론 근로자의 활발한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보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직원은 보상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기에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제고와 비전을 키울 수 있다.

김지은 씨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들도 많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검증된 곳입니다. 임금 체불 여부나 신용등급 등을 세세히 검증하기 때문이죠.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이들 기업을 눈여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라는 팁도 전했다. 우리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산업현장의 일선에 선 만큼 많은 청년이 가게 되는 곳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이 바뀌어야 청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너트론처럼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기업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G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고 3000만 원 받자!

누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복무 기간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어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은 5인 미만 가능)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변경은?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하면 2년형에서 3년형으로(3월 15일 이후 취업자 적용)
중도해지는?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가입기간 동안 적립돼 있던 정부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6개월 미만은 정부지원금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간 비교

	2년형	3년형
시행 시기	2016년 7월 (시범)	2018년 추경 신설
도입 근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2016년4월)	청년 일자리 대책 (2018년 3월)
사업 목적	**신규취업** 청년 자산형성 통한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가입 요건 (청년)	생애최초 취업자 (고보 최초 취득) ○ / 고보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 / 고보 단기가입(3개월 이하)은 산정 시 제외 ○ / 12개월 초과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 가입 허용: 2년형 ○, 3년형 ×	
가입 요건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벤처, 지식서비스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적립구조 및 만기금	**3자 적립** (청년) 2년 300만 원 24개월: 300 / 월 12.5만 원×24개월 (정부) 2년 900만 원 (기업) 2년 500 중 400 기여 (100 순지원) ⇒2년 근속 시, 1600만 원 자산 형성	**3자 적립** (청년) 3년 600만 원 36개월: 300 / 월16.5만 원×36개월 (정부) 3년 1800만 원 (기업) 3년 750 중 600 기여 (150 순지원) ⇒3년 근속 시, 3000만 원 자산 형성
2018 지원 목표	(본예산) 신규 5만 명 (추 경) 추가 4만 명	(추 경) 신규 2만 명



6월 20일부터 인근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 뉴시스

월 10만 원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 원, 5인 가구 기준 1702만 원으로, 소득하위 90% 수준이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담겨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은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첫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만 6세 미만인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해당한다.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출생 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민원 신청을 어려워하는 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의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과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기존에 따로 서류를 준비해 환불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재난 안전에도 첨단기술이 적용된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내 민원 어디까지 진행됐나? 단계별 문자알림 실시

앞으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받는다. 민원인은 제기한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담당공무원은 처리기한을 놓치지 않아 민원 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자체 80%, 중앙부처 50%, 공공기관 34%가 문자로 민원 처리 상황을 알리고 있었으며 문자를 보내는 시점은 완료 시 92%, 접수 시 69%, 처리 중 55% 순이었다. 주로 민원 처리가 완료됐을 때 알림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문자안내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민원인은 신청·접수·배부·처리 중·완료 등에 맞춰 문자알림을 받게 된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와 소관 부서장에게 처리기한 도래 시점을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6월부터 지자체에 우선 적용하고 중앙·공공기관은 안내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체 정비한다. 정부는 격년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해왔다. 공장등록 신청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 게 대표적 사례다.

올해는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골라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 실효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 불편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24(www.gov.kr)' 또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정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0

공공시설 결제 즉시 할인 받는다

다자녀를 둔 가장 박 모 씨는 온라인으로 국립휴양림을 예약하기로 했다.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객실 요금을 30% 할인해준다. 그런데 결제할 때는 요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할인요금은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가져가야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박 씨와 같은 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 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 요금 전액을 결제하고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자격을 확인한 후 환불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경차 이용자 등이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다. 현재 서비스는 서울 강서구·광진구·성동구·성북구, 인천 부평구, 강원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18년 4월 기준으로 월 5350건의 이용을 기록했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거쳐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도 체육·주차시설 이용 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2-2100-4150

재난 안전관리, 첨단기술로 스마트하게!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을 재난 안전 분야에 활용하는 '혁신성장동력 재난 안전 활용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른바 '스마트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5년간 총 6153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스마트 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 재난 전조 감지·예측 ▲사물인터넷(IoT) 활용 재난 안전 실시간 감시 ▲가상증강현실 기반 교육·훈련 ▲인공지능 기반 재난 현장 의사결정 지원 ▲지능형 로봇 활용한 인명 탐지 및 복구 지원 ▲무인기·위성 활용한 피해 규모 분석·현장 상황 공유 등의 단계로 활용된다. 아울러 단순 기술개발 차원을 넘어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극한가뭄' 시나리오를 도출해 혁신성장동력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다양한 재난 유형에 적용 방안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02-2110-2090
행정안전부 연구개발담당관실 044-205-6230

이번 주엔 뭐 하고 놀지

우리나라 최초 근대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근대미술 소장품을 공개한다. 20년간 꾸준히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 뮤지컬이 한국어 공연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82년생 김지영〉을 쓴 조남주 작가의 첫 소설집과 전작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쥬라기 월드' 시리즈 등 이번 주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1482년 파리를 뒤흔든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뮤지컬이다.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적인 노랫말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선율, 창의적인 안무로 1998년 프랑스 파리 초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명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한국어 버전으로 처음 소개돼 어느덧 10주년을 맞았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에 사는 집시 에스메랄다에게 푹 빠진 세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다. 노트르담 대성당 프롤로 주교, 주교의 충직한 종지기 꼽추 콰지모도, 노트르담 근위대장 페뷔스가 한 여자를 두고 순애보, 집착, 욕망 등 각기 다른 형태로 사랑을 표출한다.

기간 6월 8일~8월 5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541-6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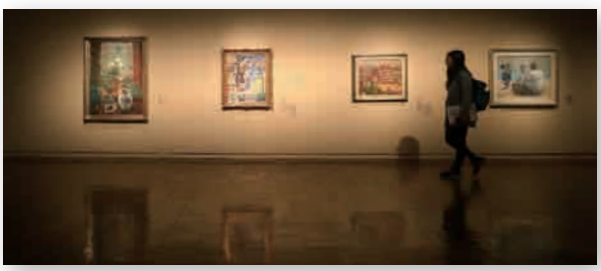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 근대미술관에서 보는 근대미술

전시 | 내가 사랑한 미술관 : 근대의 걸작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를 기념해 덕수궁 미술관 설계도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미술품을 함께 공개한다. 덕수궁관은 미술관 용도로 설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미술관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이왕가미술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근대미술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다양한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이왕가미술관이 건립될 당시의 설계도면과 사진으로 덕수궁관의 건축 미학적 가치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최초 근대미술관인 덕수궁관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본다. 2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탄생과 1972년 열린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을 재조명한다. '근대미술 60년 전'은 당시 약 60년간의 한국 근대미술을 최초로 조명했던 전시로 김종태의 '노란저고리',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 등 한국 근대미술의 교과서적인 작품이 소개됐다. 3부에서는 1973~1998년 사이 덕수궁관을 개관하기 전에 기증 또는 수집된 주요 근대미술품이 전시된다. 오지호, 김환기, 유영국 등 주요 작가들의 대표작을 선보인다. 4부에서는 1998년 덕수궁관 개관을 기념해 열린 '다시 찾은 근대미술 전'에 전시했던 작품을 다시 소개한다. 5부에서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의 궤적을 살펴본다. 채용신, 배운성, 김기창 등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기간 10월 14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문의** 02-2022-0600



뉴시스

아름다움을 넘어선 할리우드 배우의 이야기
영화 | 밤쉘

1940년대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약했던 헤디 라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알제', '붉은 타운'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 라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매혹적인 배우였다.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디 라머의 배우로서 삶이 아닌 다른 재능에 대해 말한다. 실제로 라머는 과학자로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재원이었다. 자신의 재능을 썩히지 않았던 라머는 과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열정과 탐구로 오늘날 와이파이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발명했다.

개봉일 6월 7일





지상 최대 블록버스터가 돌아왔다!
영화 | 쥬라기 월드 : 폴른 킹덤

압도적인 볼거리로 개봉할 때마다 화제가 된 '쥬라기 월드'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다. 영화에 등장하는 공룡은 3D프린터로 실물 크기로 구현해 마치 진짜 공룡을 보는 듯 생동감을 살렸다. 거기에 최근 할리우드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컴퓨터그래픽 기술과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을 결합해 실사와 컴퓨터그래픽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 이번 시리즈는 주 무대가 지상 최대의 테마파크 '쥬라기 월드'에서 이슬라 누블라 섬으로 바뀐다. 멸종 위기에 처한 공룡을 지키려는 오웬(크리스 프렛), 클레어(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는 진화된 공룡을 이용해 세상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세력에 맞선다.

개봉일 6월 6일



제가 예민한가요? 저만 불편한가요?
책 |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20만 구독자가 열광하는 유튜브 채널 '오마르의 삶'이 책으로 나왔다. 불편한 것에 대해 마냥 침묵만 하지 않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조리한 상황이나 일에서 생기는 불편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 속앓이의 책임이 온전히 나에게만 있을까? 미덕과 배려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함부로 선을 넘는 '그들의 행동'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지만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한 불편함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 불편한 화제에 당당히 의견을 피력하고, 싹싹하고 당차게 살아가는 법을 소개한다.

저자 오마르(레터프레스)

세대를 아우르는 땀과 눈물, 용기와 연대의 목소리
책 | 그녀 이름은

조남주 작가가 화제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이후 2년 만에 낸 신작이자 첫 소설집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녀, 엄마의 간호를 도맡은 그녀,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비정규직 그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그녀까지. 저자는 2018년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28편의 이야기로 완성했다. 학교, 가정, 회사 등 생활이 이뤄지는 모든 공간에서 울고, 웃고, 황당했던 경험을 풀어놓는다. 책에는 아홉 살 어린이부터 예순아홉 할머니까지 참 많은 여성이 등장한다. 이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저자는 하루하루를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땀과 눈물 어린 이야기를 소설로 새 옷을 입혀 내놓았다.

저자 조남주(다산책방)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Quiz

공감 456호 되새김 퀴즈

정성껏 준비한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기사를 천천히 곱씹어 읽은 뒤 답을 찾아보세요. 정보도 얻고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01

6월은 '○○○○의 달'이다. 국가보훈처는 이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02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이 더해진 만기 공제금을 받게 된다.

454호 퀴즈 정답

[자율성, 업사이클]

당첨자

김미경(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김은준(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4길)
이명식(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6)

Review





짧은 동영상이나 웹툰을 즐겨 보는 편인데 그런 걸 '스낵컬처'라고 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단어 그대로 가볍게 접하고 흡수할 수 있는 게 매력이죠. 다만 일부 콘텐츠들은 자극적인 요소만 조명해 불쾌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생기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는 만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환경도 발전됐으면 합니다.

김미경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그동안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고 버티다가 결국 더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개인보험이 있긴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또 얼마나 나올지 몰라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암 질병의 경우 초음파 검사 몇 가지만 받아도 조기 발견이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데 앞으로는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많은 국민이 비용 부담을 덜고 미리 검진을 받아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준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4길

해놓은 건 하나 없는데 어느새 회갑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책 만들기'는 제 오랜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문맥과 맞춤법 어느 것 하나 완벽히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막연히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위클리 공감〉을 더 꼼꼼하게 챙겨 읽게 됩니다. 특히 '글쓰기 르네상스' 편을 통해 큰 용기를 얻었어요. 머지않아 제 이름으로 책을 펴낼 수 있다는 용기를 다시 한 번 가져봅니다.

이명식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6

디지털 〈위클리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post.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blog.naver.com/mcst_pr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소감이나 제안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13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십시오.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감 되새김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를 이용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빌딩 13층 (주)조선뉴스프레스
〈위클리 공감〉 편집부 앞(우 03909)

위클리 공감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6월의 '지금'

제철 농산물 정보 및 레시피는
농식품정보누리(www.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외

씨마저도 소중한 열매 채소
참외

여름철 대표 열매 채소인 참외는 청량함과 달콤함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참외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무더운 여름철에 체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며,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참외 속은 높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회복에 매우 좋다.

대표적인 참외 요리


참외 샐러드


참외장아찌


참외 물김치


참외 깍두기

마늘

건강한 장수비결
마늘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된 마늘은 양념이나 향신료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마늘에는 살균 · 항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 풍부하며, 결핵, 장티푸스, 헬리코박터균 등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위장 질환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보관법

통마늘의 경우 가위로 대를 자른 후, 통풍이 잘 되는 망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좋고, 깐 마늘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Korea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따뜻한 보훈 |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킨 그 분들의 꿈이 지금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못다 이룬 순국선열의 꿈, 호국영령의 꿈, 민주열사의 꿈…
이제 우리 손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가보훈처